

- ▶ 수출규제 피해 기업 1000억 긴급 지원
- ▶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 ▶ 자동차 소재부품장비 시제품 제작 지원



日 경제 보복... “항일(抗日) 정신으로 위기 극복 앞장”

기해왜란(己亥倭亂) 극복

대책본부 가동·금융지원 강화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력품
피해 최소화·소재부품 육성 '집중'

비상경제상황회의 수시 개최

R&D 과제수행 지원 창구 운영
긴급 자금 6300억 원 투입 나서

충남 소재산업 지원 조례 제정

디스플레이 혁신공정플랫폼 박차
소재 개발 등 중장기 대응 강화

충남도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일본의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안 의결에 대응해 경제위기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 또 국내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소재부품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5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수출 규제 및 경제보복 조치 관련 기자회견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의 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우선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점검·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일본수출규제대책 상황실을 설치, 현 상황에 대응하면서 기업인과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비상경제상황점검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한다.

또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대책본부를 꾸리고, 기업 지원과 산업 대책, 예산·세정 지원 등 6개 분야별 대책반을 운영한다.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피해접수창구를 상시 운영하며, 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이와 함께 R&D과제 수행 지원 창구를 운영해 국내 기업이 중앙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기획 아이템 과제 작성 등 컨설팅을 지원한다.

충남의 對일본 수입 의존도 구간별 현황(2018년)

(단위 : 개, 백만달러, %/한국무역협회)

기준 (일본 수입 의존도)	품목수 (HS 6단위 기준)	수입액		평균 의존도
		총 수입	對일본 수입	
90% 이상	87	1,363.1	1,315.5	96.5
80~90% 미만	38	412.2	354.2	85.9
70~80% 미만	39	139.8	104.4	74.7
60~70% 미만	29	285.4	184.4	64.6
50~60% 미만	32	804.6	452.6	56.3
50% 미만	336	8,411.9	642.8	7.6
합계	561	11,417.0	1,053.9	26.7

주: 1) HS 6단위 기준 2) 연간 對일본 수입액 10만달러 이상 품목(561개) 기준



‘이전 공공기관을 충남 혁신도시로’

지난 13일 ‘충남 혁신도시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한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382명의 위원들이 혁신도시 유치를 염원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사진/맹철영 friend2@korea.kr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는 무담보 대출 자금 81억 원을 긴급 지원하고, 5200억 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을 투입, 적극 활용한다. 여기에 더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핵심 소재·부품·장비 등을 국산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위한 ‘충청남도 소재

산업 지원조례’ 제정도 적극 검토한다. 또한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융복합·차세대·혁신소재 개발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 맞춰 정부 예타 면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도내 중소기업 기술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신규 공장 증설 시 인허가 기간 단축을 지원하고,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대체시장 발굴과 해외 소재·부품 공급 업체

신규 발굴에 따른 경비, 신용조사 및 수입보증보험료 지원 등도 펼친다.

도는 이밖에 시·군은 물론, 충남연구원과 충남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양 지사는 “지금 우리가 위협의 요소를 제거하고, 이를 기회로 반전시켜 나가면 정신과 문화는 물론, 경제마저 우월한 위대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며 항일과 독립운동의 정신적 분향으로서 우리 충남이 앞장서 위기 극복의 대열을 이끌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경제정책과 041-635-3318

수출규제 피해 中企 1000억 투입

긴급경영안정자금 추가 증액 피해 최소화·경영안정 기대

충남도가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국내 피해 업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도에 따르면 당초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5200억 원이었으나, 이번 일본 수출규제로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00억 원을 긴급 증액했다.

분야별 금액은 ▲제조업 경영 안정 자금 700억 원 ▲기술 혁신형 경영 안정 자금 300억 원 등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일본 수출규제 품목 사용 제조업체와 한일 갈등으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제조업체 등이다.

업체당 지원 규모는 ▲제조업 경영 안정 자금 3억 원 ▲기술 혁신형 경영 안정 자금 5억 원이다.

제조업 및 기술 혁신형 경영 안정자금의 상환조건은 모두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업체 부담 금리에서 2%

를 도에서 지원한다.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기존 제조업 경영 안정 자금 및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한시적 자금이며, 도 자금을 이용했거나 이용 중인 업체도 수출 규제로 피해사실이 입증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청은 제조업 경영 안정 자금은 도내 15개 시·군 기업지원과나 지역경제과에서, 기술 혁신형 경영 안정 자금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서 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www.chungnam.go.kr) 공고·고시를 참조하거나 도 소상공기업과 및 관할 시·군 지역경제과 또는 기업지원과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용봉 도 소상공기업과장은 “급변하는 대내외적 경제상황과 업체의 피해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수시로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겠다”며, “지역경제 발전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이번 위기를 넘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기업과 041-635-2223-3442

‘소상공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충남의 희망충전

도정 톨아보기

굳건한 충남 경제 뿌리 지탱해 충남경제 희망으로 우뚝 서도록 사회보험료·지역화폐 확충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

알바들이 점주를 걱정하고, 최저생계비도 못 미치는 빠듯한 가계운영. 소상공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들의 일상은 팍팍하다 못해 애처롭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영업자 70%는 매출이 급감했다.

형편이 어렵다 보니 고용인원은 평균 1명이 채 안 됐다. 하는 수 없이 무급으로 일하는 가족근로자를 쓰지만 살림살이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

대자본에 밀려 골목상권에 내몰리고, 3명중 1명은 폐업을 생각하는 이 막막함, 경제성장률은 매년 플러

스라지만 자영업 매출은 마이너스인 이 요지경을 어찌란 건가.

도내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13만 개로 전체 사업체의 86.6%에 달한다. 종사자 수는 25만 7000명으로 전체의 36.2%를 차지한다.

이들은 예나 지금이나 충남경제를 촘촘히 떠받치는 뿌리인 것이다. 충남도는 ‘살(Live)맞나는 소상공인 살(Buy)맞나는 충남도민’이라는 비전을 세워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는다.

소상공인이 지역경제의 중추가 되도록 떠받친다는 것이다. 그 첫째가 역점을 두고 올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회보험료 지원이다.

4대 보험료조차 납부할 여력이 없는 이들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1785억 원을 지원한다.

도내 사업체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덜어주기 위한 현장 애로 타개책이다.

더해서 ‘기업하기 좋은 충남 만들

기’를 위해 지원의 글러브를 키운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규모를 오는 2023년까지 6000억 원으로 늘린다.

또 별도로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해 3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다. 중소기업의 마중물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충남의 경제를 떠받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트일 영양만점 지원이다.

또한 충남도는 지역화폐를 발행해 자본의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촉진시켜 선순환 구축에도 나선다. 골목상권에 희망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올 5월부터 발행을 시작한 지역화폐는 3개월 만에 200억 원을 넘어서 도민의 참여 열기도 대단하다.

소상공인들은 IMF 경제위기와 2008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충남 경제의 굳건히 지탱해 온 핏줄이자 뿌리다. 소상공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힘내세요, 소상공인 여러분!

/이찬선 chansun21@korea.kr



펼 펼쳐 끊는 천수만...“대응책 총동원”

양 지사, 1고수온 특보 해역 점검
어업인 애로 청취·현장 직원 격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최근 연일 이어진 폭염으로 고수온 특보가 발효된 천수만 해역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양 지사는 지난 11일 천수만 해상가두리 양식장을 방문해 지역 어업인의 어려움을 살피고, 고수온 피해 대응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양 지사는 현장에서 어업인들과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액화산소 공급 등 고수온 대응 장비를 총동원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방문한 천수만 해상가두리 양식장에서는 78개 어가가 조피볼락·송어 등 2300만 마리를 양식 중이다.



지난 11일 고수온 특보가 발효된 천수만 양식장 점검에 나선 모습

도는 지난달 29일부터 도와 시·군 합동 고수온 현장 대응팀을 꾸려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수산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내 고수온 비상대책반 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또 3개 시·군에 고수온 양식생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액화산소 공급 장치 및 액화산소 운영비 2억 5000만 원도

긴급 지원했다.

한편 지난해 충남도에서 발생한 고수온 피해는 155만 2000마리(29억 원 규모)이며, 2013년과 2016년에는 각각 499만 9000마리(53억 원 규모), 377만 1000마리(50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수산자원과 041-635-4137

자치법규 인권평가 시행

조례 제·개정 시 사전 예방

충남도가 지난 1일부터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를 전면 시행함에 따라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 공무원 실무 교육에 나섰다. 올해 3월부터 인권영향평가 시범 운영을 시작한 도는 ‘충청남도 법제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전국 광역자치체 중 서울시·광주광역시에 이어 3번째로 전면 시행을 시작했다.

인권영향평가는 도내 자치법규와 시책을 대상으로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 예방하고, 도민 인권을 보호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 평가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사회적 약자에게 침해 가능성이 있는지 ▲특정인이나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차별적 인식이 반영된 표현이 있는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문구인지 등을 기준으로 한다.

김혜영 충청남도 인권센터장은 “자치법규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규정이므로 조례 제·개정 시 도민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권영향평가 전면 시행으로 인권 행정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행정과 041-635-2339

해양수질 측정·분석 공인기관 도전한다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가 자치단체 수산연구기관 최초 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 인증기관에 도전한다. 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 5일 ‘국가공인 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 인증시험평가’ 1차 분석평가에 합격했다.

도 수산자원연구소는 현재 ▲아질산염(NO₂ -N) ▲질산염(NO₃ -N) ▲암모니아성 질소(NH₄ -N) ▲인산염(PO₄ -P) ▲규산염(SiO₂) 등

김 생육에 필요한 용존무기질소량을 판단하는 5항목에 대한 수질 분석능력 시험 평가에 합격해 현장 실사 평가만을 앞두고 있다. 해수부는 분석평가에 합격한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실 내 분석 시설 등을 종합 평가하는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인증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심의를 거쳐 합격 시 기관 인증서를 발급한다.

도 수산자원연구소 관계자는 “국가공인을 획득해 시험분석 능력을 인정받고 신뢰받는 연구기관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산자원연구소 041-635-7771

도정만평

설인호



‘임산부119구급서비스’ 체감 가장 높았다

분만 취약지역 맞춤형 서비스로
상반기 최우수 혁신사례 ‘해거’

충남도가 소방본부 119광역기동단의 ‘임산부119구급서비스’를 올해 상반기 추진한 도민 체감형 혁신정책 중 최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충남도는 지난 8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8월 행복한 직원 만남의 날’ 행사를 열고, ‘2019년 상반기 부서혁신 우수사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4개 부서의 혁신정책을 부서혁신 최우수·우수사례로 선정해 최우수사례 200만 원, 우수사례 각 100만 원의 포상금을 전달했다.

이번 부서혁신 우수사례는 민선7기도 행정혁신에서 중점 추진 중인 능동행정, 개방·공유, 참여·협력이라는 3대 과제를 대상으로 ▲도민 체감도 ▲창의성 ▲난이도 ▲효과성 ▲확산 가능

성 등의 항목을 평가해 결정했다. 평가는 도민 및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실·국·본부, 직속기관, 사업소 등의 혁신사례 17건과 협업사례 7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최우수사례로 선정된 119광역기동단의 ‘임산부119구급서비스’는 농어촌 분만 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맞춤형 구급서비스 및 임산부 원스톱 안심 출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저출산 극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건설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우수사례로는 ▲다양한 토지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위치기반 증강현실(AR) 플랫폼 구축 사업(토지관리과) ▲도내 100대 명산 통화 품질 개선을 통한 재난사고 예방 사업(산림자원과) ▲버려지는 건설자재 도민 공유·활용 사업(조사과)이 각각 선정됐다.

양 지사는 “일 잘하고 신뢰 받는 지



방정부 실현을 위해 혁신을 확산시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라며 “장기적 안목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정책기획관 041-635-2116

어장의 번영과 육지로 나간 자식의 무사를 기원

도서(島嶼)지역
사람들의 삶과 문화

⑤안택

정월·시월에 치르던 의례
12조상·성주신 초청해 위로



안택에서 법사가 독경하는 모습

안택(安宅)은 어장의 번영과 객지에서 생활하는 자식들의 무사함을 기원하는 뜻에서 행해지는 무속의례이다. 각 가정에서는 정월이나 시월 상달에 많이 하였다. 예전에는 안택을 하지 않는 집이 없을 정도였다.

무당이 섬에 살고 있으면 그분에게 요청하지만, 없는 경우에는 대천·광천·안면도 등의 육지로 가서 경쟁(법사)과 대접이를 불러다 안택을 한다. 당일 아침이 되면 부정(부정)한 사람이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대문 양쪽에 황토를 한 무더기씩 놓는다. 이날 무당과 안택하는 집 식구들은 목욕재계를 하며 정성을 들인다.

안택은 오후 3시쯤부터 시작된다. 먼저 부정(부정)을 물리치기 위해서 부엌에 부정상을 차린다. 물 한 사발에 숯검정 세 개, 빨간 고추 3개를 넣고 휘휘 저은 후 대문밖에 내버린다. 이 부정상이 나가기 전에는 일체 떡시루나 솥뚜껑을 열지 않아야 한다. 부정풀이가 진행될 때는 풍장을 쳐준다. 그런 다음에 부엌→뒤쪽→안방의 순서로 독경이 시작된다.

부엌에서는 상 위에 불밝이쌀, 떡과 국 등을 놓는다. 떡은 시루 채 뚜껑만 열어서 그대로 올린다. 돈도 조금 놓는다. 뒤이어 뒤쪽의 장광 앞에 짚을 열십(十)자로 깔아 놓고 그 위에 부엌에서 놓았던 음식을 그대로 옮겨 놓고 경을 읽는다.

독경이 끝나면 곧 떡의 일부를 떼어서 동서남북에 던지고 나머지 음식은 방안으로 가지고 간다. 방에서는 문이 있는 벽을 제외하고 나머지 삼면을 빙 둘러 열두 개의 상을 차린다. 안택에 초청되는 조상이 열두 명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12개의 상 모두에 밥 두 그릇, 국 두 그릇, 팔고물떡, 꽃감, 대추, 사과 등을 놓는다. 조상상과 더불어 성주상을 차린다. 성주상은 장광에서 위했던 음식을 그대로 가져다 놓는다. 먼저 성주를 위한 뒤에 조상을 위한다. 그런 후에 잡귀, 잡신들에게 음식을 풀어 먹임으로써 안택은 끝나게 된다.

/민정희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연구기획부장



친환경 양식 기반 갖춘다

**해수부 공모 3개 사업 선정
수산종자센터 국비 45억 확보**

충남도는 지난 8일 '2019-2020년도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공모'에 3개 사업이 모두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 양 수 산 부 에서 주 관 하 는 2019-2020년도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공모는 친환경·고부가가치 양식 품종의 생산 증대를 위해 어업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첨단 친환경 예방 양식 시스템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가 이번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 ▲스마트 예방 양식장 수질 모니터링 제어 시스템 구축 2개소 등이다.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에는 국비 45억 원, 지방비 45억 원 등 총 90억

원이, 친환경 양식 시스템 구축에는 국비 3400만 원, 지방비 6600만 원 등 총 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도는 센터 건립을 통해 어업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역 특산 품종 대상 종자생산 기술 보급으로 지역 양식업 활성화 및 어업인 소득 창출을 도모한다.

또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한국 어촌어항공단과 협업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양식 기술 기반 마련을 위해 매진할 계획이다.

스마트 예방 양식장 수질 모니터링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도 축제식 새우양식장 환경 개선, 양식 기간 단축, 출하시기 조절 등 여러 가지 불리한 요소들을 해소하고, 수질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해 고품질 새우의 생산·판매량 증대를 이끌 방침이다.

●수산자원과 041-635-4137



민선 7기 2년차 두번째 시군 방문에 나선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시민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산에 자동차부품산업 활력 UP

**전기차부품 육성계획 공개
“인프라 개발 아산이 주도해야”**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자동차 부품 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전기상용차 부품산업’을 아산시에 육성하기로 약속했다.

양 지사는 지난 12일 민선 7기 2년 차 아산시 시·군 방문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히고, 오세현 시장과 정책 협약을 맺었다. 협약 내용은 ‘소형 전기상용차 개발을 통한 자동차 부품 수출지원’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주관하는 2020 지역활력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해 우선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로써 아산시와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연구원 등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72억 원(국비 50억, 도비 22억)을 투입해 차량 및 부품 설계 금형제작, 시뮬레이션, 차체 조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양 지사는 “최근 자동차 산업은 친환경·정보화기술 융합·안전기술 강화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친환경 분야 글로벌 트렌드인 내연기관 축소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충남은 순천향대학교, 호서대학교 등 14개 지역 대학을 통해 자동차산업 관련 전문 인력을 매년 4000여 명 이상을 배출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6번째로 자동차부품을 많이 수출하는 지역으로, 전체 자동차 부품 수출액의 7%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아산시는 25.4%를 담당하고 있다.

양 지사는 “이 같은 환경은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최상의 입지조건”이라며, “미래차 혁신성장의 동력으로서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조기에 열기 위해 내연기관 차에 비해 손색없는 주행거리와 충전 시간을 확보한 전기차 인프라 개발

을 아산시가 주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협약에 앞서 친환경 에너지타운(배미동) 등을 찾아 급변하는 미래 정보화 기술을 살피고, 그 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했다.

또한 아산 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는 시민들과 함께 도정 비전 및 방향을 공유하고,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현안 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시민들은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방안 ▲청년·지역기업 연계 취업 지원 ▲신성장 KTX 역세권 연구·개발 집적지구 조성 ▲도시개발사업 활성화 ▲공공문화시설 확충 ▲복합체육여가 공간 조성을 위한 곡교천 부지 활용 방안 ▲민관협력 강화 등을 건의·제시했다.

양 지사는 “역사와 전통, 문화와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아산시를 활력 넘치는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겠다”고 말했다.

●자치행정과 041-635-3592



충청유교문화원의 범 충청권 유물 수집 기념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수집유물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범 충청권 유물 ‘한곳에’

**충청유교문화원 출범 맞아
‘보부상 유물 등 2300여점’ 수집**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원장 박병희, 이하 ‘연구원’)은 지난 5일 충청유교문화원의 범 충청권(충남·충북·세종) 유물 2300여 점 수집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충남도는 연구원 내에 충청유교문화원 준비단을 설치하고, ‘충청유교문화유산 수집·정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준비단은 올 상반기부터 충청권 4개 시·도에서 유물 수집을 시작해 충남·충북·세종에서 2,300여점의 유물을 확보했다. 수집 유물은 충남 보부상 유물 70점, 충북 함종 어씨 유물 2,200여점, 세종 연기향교 유물 103점이다.

충남 보부상 유물은 저산팔음상무좌사의 유품으로, 국가민속문화재 제 30-1호로 지정된 인장과 인장함 8점이 포함되었다. 충북 함종 어씨 유물

은 충북 청원에서 중국 만주지역으로 망명하여 활동했던 애국지사인 어윤적(1847~1933)·어취선(1870~1936) 가문의 고문헌으로, 각종 경서·문집류와 중국 고서, 화서 이항로 계열의 항일운동가 등과 교류한 간찰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세종 연기향교 유물은 1651년부터 1909년까지의 연기향교의 유립 명단을 기록한 『청아록』을 비롯하여 『연기향교흥학절목』, 『학교규범』 등 향교 운영 관련 기록과 연기지역의 향약 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향약좌목』, 『향약설립안』 등이다.

나소영 문화체육부지사는 “소중한 유물을 제공해 주신 소장자 및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들 유물이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물 기증·기탁 문의는 충청유교문화원 준비단(kmh8732@cich.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 041-840-5097

‘도정 길잡이’ 선배 도지사 경험 듣는다

**역대 도지사 초청 간담회서
도정 현안 해결 ‘머리 맞대’**

역대 충남지사들이 충남도정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전달하고, 당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충남도는 지난 7일 도청 외부인사접견실과 충남도서관 일원에서 ‘역대 도지사 초청 도정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도정에 대한 역대 지사들의 경험과 의견을 듣고, 이를 토대로 민선7기 도정발전 실천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이날

간담회에는 23대 한양수 전 지사, 24·32~34대 심대평 전 지사, 29대 박태권 전 지사, 31대 김한곤 전 지사 등 4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민선7기를 맞아 추진 중인 ▲경제와 복지가 선순환하는 체계구축 ▲저출산·고령화·양극화 위기극복 실천 방안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 발전 계획 등 도정 현안을 보고했다.

역대 지사들은 도의 눈부신 발전상에 대해 축하하는 한편,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등 직면해 있는 문제들에 대해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혁신도시 지정 ▲내포신도시 활성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평택~오송 복복선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에서 도가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역대 지사들은 충남문화의 상징물로 자리매김한 충남도서관을 방문해 내포신도시 시설물을 관람했다.

양 지사는 “도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당면한 각종 현안을 해결해 도민 행복을 높여나갈 것”이라며, “선배 지사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운영지원과 041-635-3512

시·군 위임사무 수행력...합동평가 1위 전인

**전년대비 종합 평균 45점 ↑
아산·서천 시·군부 최고점**

충남도의 올해 시·군별 위임사무 수행평가 결과, 종합 평균 점수의 상승이 정부합동평가 2년 연속 종합 1위 달성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6일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임사무 수행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아산시와 서천군이 각각 시·군부 최상위 점수를 획득



했다고 밝혔다. 위임사무 수행평가 결과, 15개 시·군의 종합 평균 점수는 지난해 805.951점보다 45.496점 오른 851.447점을 달성했으며, 시부 평균 점수는 854.0점, 군부 평균 점수는 848.5점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합동평가 전체지표 155개 중 연계된 126개(81.3%) 시·군 시책에 대한 평가 점수이기도 한 종합 평균 점수 상승은 정부합동평가에서 도가 2년 연속 종합

1위를 달성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시부 1위에 오른 아산시는 924.5점을 획득해 시부 평균보다 70.5점 높았으며, 군부 1위인 서천군은 군부 평균보다 45.6점 높은 894.1점을 받았다. 시부 2·3위는 논산시와 공주시가, 군부 2·3위는 예산군과 부여군이 각각 차지했다.

김용찬 행정부지사(사진)는 “도와 시·군의 협력·상생 관계를 강화해 국민 행정 서비스 질 향상을 이루어야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기획관 041-635-3133

**‘안전한 인삼’은 ‘녹색상자’에
인삼 GAP 유통 체계 시동**

충남도가 우수농산물 인증 인삼을 녹색 상자에 담아 도매시장에 유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6일 인삼약초세계화추진단 금산인삼관에서 ‘우수농산물 인증제도(GAP) 인삼 시장 유통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안전한 인삼 유통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한 도매시장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전국 수삼 유통의 중심지인 금산도매시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하반기 추진 예정인 이번 시범사업은 농가에서 채굴한 우수농산물 인증 인삼을 녹색 상자에 담아 유통 시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또 녹색 상자에는 생산자 성명·주소 등 생산이력 추적 정보가 담긴 생산실명제 스티커도 부착해 안전성을 강화한다. 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인삼 채굴 전 안전성 검사 비용과 출하 녹색 포장 상자, 생산실명제 스티커 등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안전한 인삼 생산과 유통 환경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농가와 도매시장의 협조”를 당부했다.

●식량원예과 041-635-7742

기술개발로 외국산 대체...공조용 송풍기 1인자 '우뚛'

스타기업 (주)금성풍력

창업 44년 송풍기시장 석권
(美)AMCA인증 획득 성과
자체 소프트웨어로 차별화



정형권 사장이 (주)금성풍력 아산공장 본사 입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최근 한-일 간 무역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 분야의 원천 기술 확보가 경제 분야 최우선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핵심기술의 대외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야말로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충남 스타기업으로 선정된 (주)금성풍력(사장 정형권)은 과감한 R&D투자로 수입품이 독점했던 공조용 송풍기의 국산화를 이끈 곳이다.

(주)금성풍력 정형권 사장은 “예전에는 송풍기가 사양산업이라 여겨지던 때도 있었지만 부품·소재 국산화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제는 수입품을 대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우리나라 제조업계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올해로 창립 44주년을 맞은 (주)금성풍력은 국내 공조용송풍기 업계의 만형 같은 업체다. 창업주인 정

동기(76) 회장을 거쳐 현재 정형권(44) 사장으로 이어지는 2세 경영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내외부 공기의 순환을 돕는 송풍기는 작게는 컴퓨터 냉각팬, 조리용 덕트(Duct)부터 크게는 대형건물 환풍기까지 종류와 쓰임이 다양하다. (주)금성풍력은 이 중에서도 공장

형건물에 사용되는 공조용 송풍기를 전문으로 생산한다.

임직원 130여명의 중소기업이지만 지난해 25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동종 업계 중 가장 높은 이익률을 실현했다.

국내 200여 송풍기제조업체 중 다섯손가락에 꼽히는 (주)금성풍력의 성장 비결로 정 사장은 과감한 R&D 투자와 이를 바탕으로 한 독자 기술,

균일한 품질 유지를 꼽았다.

특히 (주)금성풍력은 글로벌 업체가 장악한 국내 공조용 송풍기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지난 2005년 (美)AMCA(Air Movement and Control Association)인증을 국내 최초로 획득했다.

이 국제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선 연간 수천만원이 인증비용이 발생하는데다 인증 요건도 까다롭기 때문에 국내 영세규모 업체에서는 엄두를 못 냈던 게 현실이다.

직접 개발한 송풍기 설계 소프트웨어, 팬셀렉트(FanSelect) 프로그램 역시 고객사들과 소통한 결과다. 금성풍력은 1995년 팬셀렉트 프로그램을 개발, 협력업체들에 무상 배포하면서 금성풍력의 송풍기가 건물설계에 자연스럽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이끌어냈다. IMF와 같이 힘든 시기에

도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이어나갔던 덕분이다. 정 사장은 “다른 업체들은 각기 다른 업체의 부품을 구매해 조립하는 수준이라면 금성풍력은 모든 부품을 자체 생산해서 완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고른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어려운 시절에도 과감히 기술혁신에 투자했고, 특히 송풍기의 핵심인 날개 개발에 여

전히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금성풍력은 (美)AMCA 인증획득 제품으로 외산제품을 대체하며 중소기업 진흥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2년 5월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또 2013년에는 각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으며 사회적 책임 수행에도 모범을 보이는 기업에 부여되는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상을, 올해 상반기에는 중소기업인대회에서 모범중소기업인으로 선정돼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창업 44주년을 맞이한 금성풍력은 지난 2016년 아산테크노밸리 제2 산업단지에 부지 6000평 규모의 공장을 신축, 앞으로의 40년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금성풍력은 지난해 5억원을 투입, 세계3대 규모의 멀티노즐챔버시험설비를 갖췄다. 송풍기 완제품 테스트의 정밀도를 한층 끌어올려 고객의 신뢰를 한층 더 다진다는 계획이다.

정 사장은 “아산 공장 이전을 계기로 기업의 한계를 한 단계 더 극복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향후 산업계의 필수과제인 에너지 효율을 끌어올리는 것에 기술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동 khdf1226@korea.kr

소상공인 안정 기반 “더 탄탄히 다질 것”

‘살(Live) 맛 나는 소상공인 살(Buy) 맛 나는 충남도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등 약속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8일 도청 접견실에서 올해 1분기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10여 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도가 올해 도입해 시행 중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한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연 이날 간담회는 추진 상황 설명, 사업 효과 및 개선 방안 토론, 소상공인 지원 정책 방향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충남도내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13만 개로 전체 사업장의 86.6%를 차지

하고, 종사자 수는 25만 7000명으로 전체의 36.2%에 달한다.

양 지사는 “소상공인은 충남 경제의 든든한 뿌리라고 할 수 있지만, 최근 들어 많은 분들의 걱정이 커져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살(Live)맛나는 소상공인 살(Buy)맛나는 충남도민’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그중 가장 대표적이고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바로 사회보험료 지원”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충남도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으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도

비 1000억 원과 시·군비 770억 원 등을 투입, 총 1785억 원에 달하는 지원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도의 사회보험료 지원은 도내 사업체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시·군과 함께 추진 중인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월 평균 21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10인 미만 고용 중인 도내 사업장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연간 한 차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소상공기업과 041-635-2224

도, 4차 산업혁명 컨트롤타워 가동

양 지사 등 전문가 29명
충남 4차산업혁명위 출범

충남도가 신산업 육성 및 사회변화에 대응을 위한 ‘민관협치 컨트롤 타워’를 가동한다. 도는 지난 9일 도청 상황실에서 ‘충남도 4차 산

업혁명위원회’를 출범하고, 이와 관련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에 출범한 위원회는 ‘충남도 4차 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 4차 산업혁명 발전을 견인하고, 주요 정책을 심의·점검하는 기구이다. 위원장은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맡았으며, 정책의 연계성 있는 추진을 위

해 미래산업육성을 비롯한 실·국장, 도의원,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별 민간 전문가 등 29명이 위원회에 포진됐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 수여 ▲부위원장 선출 ▲4차 산업혁명관련 도 추진상황 보고 ▲특강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 토론으로 진행됐다. 특히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고진 위원이 참석해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동향과 발전방향’을 제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양 지사는 이 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방안을 마련하자며, “최근 일본 수출규제 문제 등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한 전략산업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미래성장과 041-635-3957



2019년 소상공인 가업승계 지원 참여업체 모집

모집기간 2019. 8. 1.(목)~9. 2.(월)

- 지원규모** 5업체
- 신청자격**
 - 1. 동일한 업종(업태)으로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중 2대 이상 사업을 진행한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등 증명서류 기준
 - 2. 최종 가업승계자의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19년 7월 31일(포함) 이전인 경우 ※ 위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1. 경영지원 선정업체별 경영지원금(최대 8백만원) 지원
 - 2. 홍보지원 인증현판(인증서) 수여, 홍보영상 제작·송출
 - 3. 예보지원 예로분야 및 희망분야 전문가 자문 지원
 - 4. 인증지원 인증유요기간(3년) 내 충남도 소상공인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 진행일정**
 - 1. 신청 접수
 - 2. 서류심사
 - 3. 현장심사
 - 4. 발표평가
 - 5. 지원사업 계약
- 신청방법** 신청서 및 제출서류(충남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를 우편 및 방문, 이메일(sbzcenter@naver.com) 제출
- 문의처**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보부성 콜센터) Tel. 041.424.4000

충청남도·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행복가게를 찾습니다” 가업승계 소상공인 모집 중

충남도와 충남경제진흥원(원장 오광욱, 이하 진흥원)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가업승계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2019년 소상공인 가업승계(충남행복가게)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다음달 2일까지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동일한 업종(업태)로 10년 이상 및 2대 이상 사업을 진행하고, 최종 가업승계자가 2018년 7월

31일 이전 창업한 소상공인이다.

선정된 가업승계 소상공인에게는 경영지원금(800만 원), 충남행복가게 인증현판(인증서) 수여, 홍보영상 제작·송출,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한다.

가업승계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충청남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증빙서류 등과 함께 우편·방문·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충남경제진흥원 보부성 콜센터(041-424-4000)로 문의하면 된다.

●충남경제진흥원 041-539-4521



기해왜란 극복...“R&D 강화·세계 지원·긴급자금으로 대응”

(己亥倭亂)

충남도는 지난 13일 9시, 도청에서 경제통상실장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상황 및 향후계획 논의를 위한 제2차 경제위기대응 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기해왜란이라 일컬어질 만큼 도발적인 일본의 수출규제 및 화이트국가 배제에 대한 충남도의 대응 및 극복 방안을 구체화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IT 제품 수출 비중 크고

대일본 수입 의존은 높아

충남 서북부 피해 직격 예상

충남경제동향분석센터에 따르면, 충남도는 2018년 기준 반도체·디스플레이·컴퓨터부품 등 IT 제품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액에서 68.2%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수출 규제 조치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기존 생산량 대비 10%의 차질을 가정할 경우, 지역내 총생산(GRDP) 대비 디스플레이 0.8% > 자동차부품 0.4% > 자동차 0.4% > 반도체 0.2% > 배터리 0.1% 감소가 예상된다. 피해는 충남 서북부 지역인 천안·아산·서산에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더불어 1만 8000여 명의 고용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도내 대일본 수입 품목 2374개 중 연간 수입액 10만 달러 이상 품목은 561개에 달하며, 이 중 의존도 90% 이상은 87개, 50% 이상 225개, 50% 미만은 336개로 집계됐다.

수입 의존도 90% 이상 품목 87개 중에는 기계류 및 전기기기가 27개로 가장 많았고, 비금속제품 20개, 화학연관 품목은 13개로 나타났다.

수입액은 비금속제품 5억 6200만 달러, 광물성 생산품 5억 3000만 달러로, 전체 대일 수입액의 83%를 차지하며 도내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종합 대응계획 발표
- 피해 최소화 위한 추경 2732억 원 반영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
- 수출제한 3대 품목 포함 100개 핵심품목 선정, 집중 투자

· 일본 : 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시행세칙 발표
- 추가 규제품목 미지정 - EUV 포토레지스트 한국 수출 허가

· 정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지원 사항 입법예고
- 국무회의 거쳐 9.3(화) 정기국회 제출 예정

· 정부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발표
- 일본 백색국가 제외 예고(9월 중 시행)



· 경제위기 대응체계 본격 가동
- 15:00 행정부지사 주재 긴급 대책회의
- 17:00 규탄성명서 발표
- 17:30 도지사 주재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
- 경제정책과 내 ‘일본수출규제 대책상황실’ 운영

· 중앙·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

· 지방정부 영상회의
· 현판식
· 충남도 대응방안 발표 브리핑
· 기업으로 접수창구 운영 (충남경제진흥원, 충남TP, 15개 시·군)

· 6개 대책반장 대응회의(매주 화요일 예정)
· 대책반별 근무요령 실무교육
· 시·군 경제과장 영상회의



· 기업 대응방안 순회설명회 (80개 기업 97명 참석)

· 제2차 경제위기대응 대책회의

일 수출규제 이후 정부 및 충남도 대응 상황

2일, 경제위기 본격 대응

경영안정자금 등 단기 대책서

중장기 산업 생태계 강화 예고

이에 도는 지난 2일, 경제위기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민·관 협력에 기반한 체계적 대응체계 구축 ▲ 피해기업 지원 및 산업 생태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지원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체계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난 5일, 경제상황판단 및 도·시·군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영상회의 후 ‘경제위기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했다.

대책본부는 총괄관, 예산세정지원관, 산업대책관, 고용노동지원관, 기업지원관, 언론홍보관 등 6개 반으로 운영되며, 정부와 업계의 동향을 파악해 필요 기업에 경영안정자금 등 피해기업 지원과 산업 육성대책 마련에 적극 대응한다.

필요 시 제2회 추경에 피해지원 예산 반영도 검토해 하반기부터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정책과 내에는 경제위기대책상황실을 설치, 전담 공무원을 지정 배치해 기업으로 접수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동향 보고를 담당한다.

또한 도는 피해기업 지원 대책 및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단기와 중장기 대책으로 나눠 소재부품 장비 산업 기반을 다지기 위한 세부계획들을 제시했다.

6200억 긴급경영자금 투입

지방세 납부 연장·세무조사 유예

DP 플랫폼 추진 박차 등 총력전

우선 단기 대책으로는 ①상시 경제동향 모니터링 체계 강화 ②기업으로 접수창구 설치·운영 ③수출규제 ‘지역 순회 설명회’ 개최 ④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금융 지원 ⑤소재부품산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 추진 ⑥일본 수출기업 대상, 원재료 의존현황 및 피해 상황 조사 추진 등을 실시한다.

특히 기업으로 접수창구에서는 ‘R&D과제 수행 지원창구’를 별도로 운영, 정부의 R&D과제 선정절차 기간 단축(1년→6개월) 및 2022년부터 시작되는 신규 소재부품장비분야 예타사업 면제 시행 등에 대응토록 지원한다.

또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엔 무담보 자금 81억 원을 긴급지원하고, 6200억 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적극 활용한다.

당초 도는 5200억 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활용을 계획했으나, 지난 12일 1000억 원 추가 투입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제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중장기 대책으로 ①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본격 추진 ②핵심 소재부품 장비 기술개발을 위한 R&D 사업 확대 지원 ③수입선 다변화 등 중소기업 통상 지원 강화 ④도내 피해기업에 대한 해외소재·부품 공급업체 신규발굴 경비 지원 ⑤신규 수입 대체처 발굴을 위한 신용조사 및 수입보증 보험료 지원 등의 근본적 대안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수출 규제 극복을 위해 카이스트 이공계 교수 100명이 기술지원 및 상담을 약속하고 나선 만큼, 도는 관련 기업과 이들 인력풀의 연계를 적극 추진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과 지원을 바탕으로 위기 극복에 매진한다.

/손유진 syj0319@korea.kr

별빛 가득 충남, 석탄 시대에서 재생에너지 시대로

충남의 미래

⑤에너지 전환 비전과 원칙

충남의 에너지 체계를 단순하게 표현하면 석탄화력발전소와 에너지 다소비기업의 집적지라 할 수 있다. ‘이런 에너지 시스템을 유지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충남은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대답한다.

이에 2018년 3월, 충청남도는 2050년을 목표로 ‘에너지 시민이 만드는, 별빛 가득한 충남’ 에너지 전환 비전을 도민들과 함께 선언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2040년, 충남은 두 모습으로 다가온다.

하나의 충남에서는 별빛이 사라졌다. 비단 충남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에너지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전력난 등으로 경제적·사회적 재난을 맞이한다.

또 하나의 충남에서는 밤하늘 쏟아지는 별빛을 찾는다.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공장, 전기차 등 에너지의 고효율화를 비롯, 시민들의 자발적인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 자연 순환 농업 참여로 에너지 소비량이 줄고,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가 순차적으로 폐쇄된다.

별빛 쏟아지는 밤하늘을 보기 위해 우리는 충남 에너지 전환 비전에서 제시한 여섯 가지 원칙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 에너지를 덜 쓰고, 에너지 서비스를 향유하자. 둘, 석탄 시대를 넘어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 시대로 나아가자. 셋, 지역경제를 위해 재생에너지에 투자하자. 넷, 시민이 에너지 전환을 이끈다. 다섯,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자. 여섯, 에너지 의존적 삶의 양식을 바꾸자.

최근 세계 곳곳에서는 인류의 멸종을 야기할 기후변화에 더 긴급하게 대응하지는 ‘멸종저항’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에 근거한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압력으로

충남의 주력 산업이자 에너지다소비 산업인 석유화학·철강·자동차·디스플레이·석탄화력발전 등의 산업은 위축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며 충남의 사회·경제·정치·문화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 우려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요구하자. 석탄화력발전소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축소된 자리를 재생에너지 및 분산형 에너지 산업과 문화, 관광, 교육, 농업, 생태건축, 생태교통, 환경·생태 분야의 저탄소 산업이 메꾸어 가면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시민들은 녹색전력요금, 시민기금, 크라우드펀딩 등 다양한 형태로 에너지전환 사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다. 에너지 의존적인 삶의 양식을 바꾸기 위해 시민·기업·연구자·행정 등 모든 사람들의 제안을 검토하고 실험하는 에너지 리빙랩을 제안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자.

/여형범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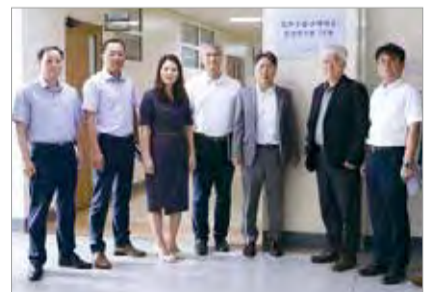
충남연 ‘日 수출규제 대응 TF’ 출범

도 경제위기극복 지원

충남연구원(원장 윤환)은 일본의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과 관련하여 ‘일본수출규제 대응 TF’ 팀(팀장 이인배 기획경영실장)을 구성하고, 충남도민의 경제피해 파악과 대응방안 모색에 들어갔다. 이는 충남도 경제위기대책본부가 가동됨에 따라 도의 경제위기극복을 지원하고 보다 적극적인 피해 파악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연구원은 이와 관련, 지난 7월 초부터 도지사를 주재로 도, 시·군 및 경제단체장, 기업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방안 등의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번 TF팀 구성을 계기로 현안 대응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경제 분석 연구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제·산업연구실 및 충남경제동향분석센터, 충남경제교육센터와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가 협력하



충남연구원 일본수출규제 대응 TF 발족 현판식 개최 모습

여 경제 효과 분석 및 지원체계 구축과 경제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윤환 충남연구원장은 “우리는 위기를 통해 하나가 되고, 더욱 발전하는 역사를 지닌 나라”라며, “지금의 위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이고, 그 기회를 위해 충남의 싱크탱크인 충남연구원이 선도적인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연구원은 지난 7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TF 발족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경제위기극복 대응에 돌입했다.

●충남연구원 041-840-1126



지난 10일 개최한 충남청년네트워크 통합 워크숍에 참석한 양승조 충남도지사(사진 앞줄 오른쪽부터 네 번째)와 청년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년 뜻’ 담긴 정책 발굴 매진

충남청년네트워크 통합워크숍 정책연구 통해 내년도 정책 제안

충남도는 지난 10일 덕산 리솜리조트에서 2020년 청년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충남청년네트워크 통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비롯한 충남청년네트워크 위원, 충남청년정책위원, 시군 청년정책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충남청년네트워크는 청년의 도정 참여와 정책 제안 활성화를 위해 도에서 구성한 정책연구위원회로, 도에 거주하는 18~34세 청년과 대학생, 청년 활동가 등으로 구성됐다.

워크숍에 참석한 청년위원들은 지난 5월 활동 발대식 이후 분과별로 추진해 온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발표 내용 토의를 통해 2020년 충남도에 바라는 청년 정책 추진 방향을 제안했다.

도는 이날 충남청년네트워크로부터

제안 받은 정책들을 내년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지역별 상황·조건·자원 등을 고려해 추진할 방침이다.

양 지사는 “청년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정책의 당사자인 청년의 뜻을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있다”며, “이 자리를 통해 제안된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정책으로 결실을 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노동청년과 041-635-3415

하반기 도시재생 ‘4곳 이상 선정’ 목표로

도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력 물량 및 국비 확보에 최선

충남도가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하반기 공모에서 4곳 이상 선정을 목표로 역량을 결집한다. 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3270억 원 규모, 148개 도시재생 뉴딜 단위사업을 착공하고, 540억 원 규모 46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도시재생사업 100여 곳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22곳 중 충남은 2곳이 선정됐다. 이번 하반기에 78곳을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충남은 광역선정 3곳과 중앙선정 1곳 등 최소 4곳 이상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재까지 도내 시·군에서 광역선정 7곳, 국토부 선정 4곳 등 11곳이 공모에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는 시·군과 협업, 전문기관 자문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우수사업 발굴 및 사전 컨설팅으로 공모 선정률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공모사업은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발표평가를 거쳐 종합된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활성화계획 최종 점검 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내달 최종 확정된다.

도 관계자는 “하반기 사업 선정 방식이 기존 ‘공개경쟁 공모’방식이 아닌 ‘사업 승인 방식’으로 변경됐다”며 “올해 6월부터 본격 업무에 돌입한 도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력해 최대한 많은 물량과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건축도시과 041-635-4660

홍성의료원장에 박래경 신임 원장 임명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9일 도청 접견실에서 박래경 신임 홍성의료원장(사진)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 신임 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심사, 도의회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논산 출신인 박 원장은 서대전고와 순천향대 의과대학, 충남대 및 순천향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이후 순천향대 구미병원에서 22년간 교수로 재직하면서 외과과장·응급실장·수련부장·진료부장·병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박 원장은 홍성의료원 운영 방향 및 경영 전략으로 ▲찾아가는 공공의



료사업 강화 ▲우수 의료진 확보 및 첨단 의료장비 확충을 통한 경영 개선 ▲친절 운동을 통한 내·외부 고객 만족도 제고 ▲환자의 노사문화 구축 ▲대·내외 홍보 강화 및 지역 자문단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박 원장의 임기는 오는 2022년 8월 8일까지 3년이다. 박 원장은 “홍성의료원이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립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정책과 041-635-2645

한화그룹, 제65회 백제문화제 후원

9월 28일 공주서 막 올라

백제한화불꽃축제 기대 만발

한화그룹의 대표적인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인 ‘백제한화불꽃축제’가 오는 9월 28일 충남 공주에서 열리는 제65회 백제문화제 개막식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사진>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김신연 한화커뮤니케이션위원회 사장은 지난 13일 오후 충남도청 접견실에서 ‘제65회 백제문화제 후원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 사장은 한화그룹을 대표하여 양 지사에게 ‘제65회 백제문화제 후원 협약증서’를 전달하고, 양 지사는 김 사장에게 ‘제65회 백제문화제 공식후원사 인증서’를 수여했다.

양 지사는 “한화그룹이 매년 후원하는 백제한화불꽃축제는 단순한 즐길거리를 넘어 백제문화제 방문객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며 “백제문화제의 세계화를 위한 한화그룹의 후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사장도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축제인 백제문화제의 품격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불꽃축제를 올해에도 선보일 예정”이라며 “한화그룹은 충청권 연고기업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공헌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제문화제 개막식 행사장 일원에서 열리는 ‘백제한화불꽃축제’는 2011년 시작하여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다. 축제는 매년 백제문화제의 주제에 맞춰 내레이션, 영상, 특수효과 등이 접목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불꽃쇼가 진행돼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백제문화추진위원회 041-635-6991

간추린 도정



‘한돈’으로 이웃사랑 실천

충남도 내 양돈농가들이 십시일반 힘을 모아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돼지고기를 쾌척했다. 한돈협회 충남도협의회(회장 최상락)는 지난 6일 도청 접견실에서 양승조 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돼지고기 기탁증서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남도지회에 전달했다.

이날 기탁한 돼지고기는 13톤(7500만 원 상당)으로, 충남한돈협회 회원 농가들이 돼지를 키우며 조성한 한돈자조금으로 마련했다.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탁 받은 돼지고기

를 다음 달 추석 명절 전 도내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축산과 041-635-2543

근로시간 단축기업 ‘홍보영상’ 제작 지원

충남도와 충남경제진흥원(원장 오광욱)에서 운영하는 충남일자리종합센터가 근로시간 단축의 조기정착을 위해 구인 홍보영상 제작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홍보영상 지원사업은 기업의 비전, 채용희망 인재상, 근무환경 등을 영상에 담아 배포하는 사업으로, 도 일자리센터는 이를 통해 기존 텍스트 중심의 구인공고문에서 탈피하여 ‘구인공고문의 신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근로자 수 50~300인의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한 도내 기업 누구나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및 문의는 충청남도경제진흥원과 충남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 또는 유선전화와 이메일로 문의·접수하면 된다.

●충남경제진흥원 041-539-4556

충남소방-서산의료원 소방협력병원 지정 협약

충남소방본부(본부장 윤순중)와 서산의료원(원장 김영완)은 지난 9일 서산의료원에서 도내 공상 소방공무원 응급진료 및 심신 건강관리 등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 소방본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서산의료원을 소방협력병원으로 지정, 소방대원에 대한 응급 진료와 직업성 질환 진료 등 소방공무원의 심신 건강관리를 받게 된다. 또한 서산의료원에 대한 중사자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훈련 지원 등을 통해 소방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윤순중 본부장은 “도내 의료원과 소방협력병원 지정 협약을 통해 소방공무원 부상 발생 시 신속한 응급 치료와 심신 건강관리 체계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행정과 041-635-5577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충남도는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

까지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주민의 보건의로 및 건강 수준을 파악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보건 사업 기획·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표본가구로 선정한 도내 19세 이상 성인 1만 3500명으로, 선정한 표본가구에는 사전 통지서를 우편으로 전달하고, 조사원이 각 가구를 직접 방문해 면접조사 및 신체계측 조사를 실시한다. 올해는 혈압측정 조사를 정식 도입해 고혈압 유병률 등 혈압 관련 지표들도 산출한다.

도는 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해 실효성 있는 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강증진식품과 041-635-4335

공직사회도 “제2의 독립운동”

일본이 최근 한국을 백색국가(WHITE LIST)에서 제외하자,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태신,



이하 충남노조)이 ‘NO JAPAN’ 플랜카드를 내걸며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했다.

충남노조는 지난 6일 도청 대로변 3곳에 ‘NO JAPAN 사지 않습니다. 가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대형 플랜카드를 제작해 일제히 내걸고, ▲일본산 제품 구매하지 않기 ▲일본 여행 가지 않기 ▲일제 식민사관 추방하기에 공직사회 역량을 총집결시키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 대한 보복 조치로 시작된 아베 세력의 불순한 정치적 야욕이 분쇄될 때까지 ‘제2의 독립운동’을 전개한다는 심정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 041-635-5815



‘혁신도시 유치’ 220만 충남도민 뭉쳤다

범도민추진위 13일 발대식 개최
“공공기관 이전·지역인재 채용”
혁신도시 유치 당위성 홍보 주력

220만 충남도민들이 혁신도시 유치를 염원하며 하나로 뭉쳤다. ‘충남 혁신도시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혁신도시 범도민추진위)’가 13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신도시 범도민추진위는 충남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기구로, 충남사회단체 대표자회의 대표자 125명과 지방분권추진연대 대표자 30명, 도내 국회의원 11명을 비롯한 정

치계 인사 223명 등 총 382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공동위원장은 유병국 도의회 의장과 전영한 충남발전협의회 회장, 이상선 지방분권추진연대 상임대표, 임동규 충남새마을회 회장, 최대규 한국자유총연맹 충남도지부장, 전재하 충남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 등 16명이 맡았다.

혁신도시 범도민추진위는 공동결의문을 통해 “참여정부는 2004년 당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공공기관을 이전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이유로 충남도를 혁신도시에서 제외했다”며,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지역성장저점 육성 정책에서도 소외된 공공기관 이전이나 지역인재 의무채용 해

택 등에서 배제되는 등 삼중, 사중의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도시 범도민추진위는 앞으로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충남 혁신도시 지정이 이뤄질 때까지 모든 역량을 모아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아가기로 했다.

양 지사는 “혁신도시는 지방화와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뒷받침하는 초석으로, 충남의 혁신도시는 지역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끌고 새로운 성장을 뒷받침할 힘찬 동력이 될 것”이라며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건설정책과 041-635-4629

“애국·애족 위한 희생에 경의를”

광복절 맞아 독립유공자 위문
15일까지 유공자 351명 방문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0일 금산군 소재 주공아파트를 찾아 독립을 위해 헌신한 생존 애국지사 및 유족을 위문했다.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진행된 이번 위문은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고,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표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날 양 지사는 이일남 애국지사와 고 최병무 애국지사의 미망인 방순례 여사를 각각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일남 애국지사는 1942년 전주 사범학교 재학 시 일본인 교장의 민족차별교육에 분개해 비밀결사단체 ‘우리회’를 조직, 항일 운동을 전개한 공로

로 지난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 받은 바 있다. 고 최병무 애국지사는 일제강점기 항일결사 ‘시장친우회’를 조직해 일제의 지원병 강제모집에 반대하는 불합격자초운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이번 위문 행사는 오는 15일까지 도내 독립유공자 3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도와 시·군 간부 공무원들이 직접 지역별 유공자를 찾아 위문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사회복지과 041-635-4243

벌채도 충남이 하면 ‘친환경’ 실현

산림청 대회 ‘우수’ 기관 선정
수림대·잔존구역 배치 뛰어났다

충남도가 친환경 벌채 우수사례 지역으로 선정됐다. 도는 산림청이 주관한 2019년 친환경벌채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산림 생태와 경관을 고려한 친환경 벌채를 확대한 공로를 인정,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경진대회는 전국 국유림 관리소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1차 서류 심사와 2차 현장 심사를 거쳐 최우수·우수·장려 등 모두 4개 기관이 선정됐다.

우수 대상지로 선정된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도유림(35ha)은 생태적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수림대와 잔존구역을 적절하게 배치한 것이 높게 평가됐다.

실제 이 지역은 산림의 생태적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벌채지와 벌채지 사

이 수림대를 20~170m로 적정하게 존치했다. 원형 잔존구역은 20~50m 산림영향권을 최대한 고려해 적절하게 배치하는 등 친환경 벌채 기준을 준수했다.

또한 이곳은 밀원 감소로 인한 생태계 균형 유지와 양봉농가 등 지원을 위해 지정한 밀원수 시범단지, 아까시·울나무·백합나무 등 9만 본을 식재해 관리하고 있다. 도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산림청장 표창과 부상 200만 원, 해외연수 기회 부여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산림자원과 041-635-4493

‘날모리’와 ‘널모리’

I 이명재의 충청말 이야기 (19)

‘오늘의 다음다음날’을 의미
충청 남부에선 ‘날모리’로
충청 북부에선 ‘널모리’로

충청말은 다 같은 것 같지만 곰곰이 살펴보면 차이가 있다. 충북의 말과 충남의 말은 차이가 크다. 천안·세종과 증평·청주는 충남과 충북으로 행정구역이 다르지만, 서로 인접하여 말이 차이가 거의 없다.

이와 달리 충주·제천은 같은 충북이지만 청주 말과는 확연히 다르다. 충남 말도 마찬가지다. 서북부의 서산·당진말과 남서부의 서천·논산말은 차이가 크다.

대체로 충남말은 차령산맥을 중심으로 북부와 남부 지역의 차이가 드러난다. 가장 큰 차이는 ‘허다’와 ‘하다’에서 살펴볼 수 있다.

충남 북부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다’를 거의 쓰지 않는다. 물

론 충남 남부와 전라도 지역에서도 ‘허다’를 꽤 쓰지만, 이는 ‘하다’를 중심으로 ‘허다’가 일부 사용되는 정도다. 그래서 ‘허다’만 고집하는 사람이라면 충남 북부 사람이다.

‘하다’를 섞어 쓰면 충남 남부 사람이다. 일례로 충남 남부 사람이 ‘자는 일을 참 잘 하!’라고 할 때 북부 사람은 ‘자는 일을 참 잘 허!’라고 한다.

얼마 전 천안에서 전화가 왔다. 80대의 어르신이다. 논산 연무대에서 나고 자랐단다. 고향을 떠나 당진의 전곡리라는 시골 동네서 30년 동안 목회를 했단다. 처음 당진에 왔을 때는 논산에서 듣지 못한 말들을 많이 듣고 놀랐다고 한다.

당진 사람들은 생각이 좀 모자란 사람을 놀려 ‘시절’이라 부르고, 모자란 행동을 하면 ‘시절 핀다’라고 했단다. 더 심할 때는 ‘째다’라고 했단다. 당진에서 살아 보니 같은 충청도인데도 말이 참 다르려란다. 그 가운데 ‘널모리’가 또 특별한단

다. 논산에서는 ‘날모리’라 하는데 당진 사람들은 다들 ‘널모리’라고 하더라.

‘날모리, 널모리’는 ‘모레’의 충청 말이다. 오늘의 다음다음날이다. ‘날’은 ‘니알’의 준말이고, ‘널’은 ‘니얼’의 준말이다. 한자말 ‘내일(來日)’에서 온 말로 오늘의 다음날이다.

‘내 니알모린/날모린 시간이 안 되니께 답이 보자.’ (충청 남부말)

‘내 니얼모린/널모린 시간 많으니까 암제나 만나.’ (충청 북부말)

예문에서 볼 수 있듯 충청 남부에서는 ‘하’처럼 ‘니알’을 쓰고, 북부에서는 ‘허’처럼 ‘니얼’을 쓴다. ‘모리’는 ‘모레’의 충청 말이다. 충청도에서는 ‘모리’를 단독으로 쓰지 않고 ‘니알, 니얼’을 붙여 쓴다. 그래서 충남 남부지역에서는 ‘니알모리, 날모리’가 되고 북부지역에서는 ‘니얼모리, 널모리’가 되었다.



이명재
 예산군 내포제 시조 보존회 회장

‘인권도정’도 충남이 먼저

제3기 도 인권위원회 출범

충남도의 인권정책 발굴·추진에 대한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는 제3기 충청남도 인권위원회가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도는 지난 8일 도청에서 ‘제3기 충청남도 인권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제1차 회의를 실시했다.

도 인권위원회는 ‘더 행복한 인권도정 충남’이라는 구호 아래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 시책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날 도는 ▲인권정책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여성 ▲이주민 ▲노동 등 7개 분야 전문가들과 인권정책의 연속성을 위해 재위촉한

2기 위원 3명 등 총 20명을 제3기 인권위원으로 위촉했다. 제3기 인권위원회의 임기는 오는 2021년 8월 7일까지 2년간이다.

위촉식 이후 진행된 제1차 인권위원회회의에서는 지난 1·2기 인권위원회 활동성과를 살펴보고, ▲인권 업무현안 및 계획 ▲인권 정책 추진 상황 등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3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인권에 대한 이해와 약자에 대한 배려·보살핌이 고려돼야 한다”며, “앞으로 도는 인권위원회와 함께 인권의 가치를 더욱 확산하고, 인권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행정과 041-635-3611

도립대생 김주희·김은화 바리스타사관학교 입소

바리스타 양성 명문인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 호텔조리제빵학과 재학생들이 국내 최고 커피 전문가 양성소인 ‘바리스타사관학교’에 입소해 눈길을 끌고 있다.

충남도립대 호텔조리제빵학과는 김주희·김은화 재학생이 ‘2019년 제5기 한국바리스타사관학교(KCMA, Korea Coffee Master Academy)’에 선발돼, 15일까지 전문 바리스타 교육 과정을 이수했다고 밝혔다.

(사)한국커피협회와 충북보건과학대학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한국바리스타사관학교는 지난 2016년 개소한 이래 올해까지 4년간 총 80명의 이수생을 배출하는 등 커피마스터 양성소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제5기 한국바리스타사관학교 교육에는 전국 대학교의 식·음료 관련 학과에서 선발한 재학생 16명이



제5기 한국바리스타사관학교 입소식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김주희 교수(사진 가운데)와 김주희(사진 오른쪽), 김은화 학생

참여해, 2주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고급 커피마스터 과정을 이수한다.

교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사)한국커피협회가 장학금으로 지급하며, 국가대표바리스타 등 전국 최고의 강사진 20여 명이 참여해 120시간에 걸쳐 다양한 이론과 실습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바리스타 꿈나무의 실력 향상을 이끌었다.

●충남도립대학교 041-635-6757

해학·신명 넘치는 ‘난장’으로 관객 어깨 ‘들썩’

문화사-난장엔판

병천고 출신 10명으로 구성
전통현대 조화된 퓨전공연 호평



난장엔판 멤버들이 각자의 악기를 들고 활짝 웃고 있다.

전통연희단 ‘난장엔판’ (대표 이주용)은 이름처럼 전통 난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전통공연예술단체다. 지난 2004년, 천안 병천고등학교 졸업생 10명이 김철기 원광디지털대학교 교수와 함께 창단했다. 병천고등학교에서 동아리활동을 통해 전통연희를 배운 것을 인연으로 15년째 충남을 중심으로 활발한 공연활동을 펼치고 있다.

난장엔판의 중심은 이주용(33) 대표다. 단체 창단멤버인 이 대표는 남다른 추진력으로 각종 기획공연과 행사를 유치하며 ‘난장엔판’의 중심축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 대표는 “단원들이 같은 고등학교 동문이면서 나이도 20대 중후반으로 비슷해 소통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라며 “대다

수 단원들이 고등학교부터 대학교, 군대 기간 군악대 활동까지 공연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꾸준히 실력을 쌓아갈 수 있었다”고 비결을 소개했다.

난장엔판의 주요 레퍼토리는 사물놀이, 사물관공, 줄타기, 비나놀이, 살판, 탈놀이 등이다. 단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명의 단원이 여러 가지 공연을 두루 섭렵하는 멀티플레이어 역할을 하고 있다.

단원들은 공연과 관련된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일정이 잡힐 때마다 틈틈이 모여 합을 맞춘다. 천안시 성정동에 위치한 연습실은 이들의 소중한 아지트다.

최근 난장엔판은 ‘난장도깨비굿’이란 공연으로 관객과 만나고 있다. 난장도깨비굿은 사물놀이와 락백드가 협업하는 형식의 퓨전공연으로 절로 어깨가 들썩거리는 흥겨움과 신명이 매력으로 손꼽힌다.

올해로 창단 15년을 맞은 난장엔판은 오랜 경력 만큼이나 다채로운 활동과 뛰어난 실력으로 공연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해 20여 차례의 초청, 기획공연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올해만 해도 ▲3·1절 100주년 기념공연 초청공연 ▲제주시 애월읍 왕벚꽃축제 초청공연 ▲대전 문화제청 기념공연 ▲천안 단오난장 초청공연 ▲세종 단오제 초청공연 ▲제주도 하하페스티벌 초청공연 등 매달 2~3차례의 원정 공연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해외 공연 러브콜도 쏟아지는데 6월과 7월에는 말레이시아(코리아 엑스포)와 이탈리아(세계라이온스클럽 초청공연)를 방문했고, 오는 9월에는 방콕 한국문화원을 찾아 초청공연을

선보인다.

이 밖에도 난장엔판은 각종 교육문화사업(난장 공부방, 전통연희 체험교실, 입시지도, 특수교육 직무연수, 교정시설 체험형 문화예술교육 등)은 물론 충남문화재단, 충남학생교육문화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등이 주관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선정돼 전국 곳곳을 찾아 전통공연의 매력을 뽐내고 있다.

난장엔판은 젊은 열정이 돋보이는 활발한 발판 삼아 지난 2006년, 예산 전국품물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이래 ▲2012 국제 통영국제음악제 대축제(그랑프리) ▲제17회 전국 율리농악경연대회(금상) ▲2018 아시아 전통연희축제 ‘천하제일 관대단’(최우수상) 등에서 각종 상을 휩쓸며 충남 예능인의 저력을 뽐내고 있다.

이주용 대표는 “전통음악과 공연이 고루하다는 편견을 깨고 관객들과 언제나 즐겁게 소통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혜동 khd1226@korea.kr

문화행사

가족뮤지컬 ‘안녕 자두야’

■일시 : 8월 24일
■서산시문화회관 여름방학 특선 가족 뮤지컬 ‘안녕 자두야’를 기획공연으로 무대에 올린다. 여름방학을 맞아 부모와 아이가 함께 관람할 수 있는 고풍리티 가족뮤지컬이다.
■장소 : 서산시문화회관 대공연장
■문의 : 041-660-2566

가족매지컬 ‘매지컬 알라딘’

■일시 : 8월 24일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알라딘이 매지컬로 돌아왔다. 매지컬은 마술(매직)

과 뮤지컬이 합쳐진 신개념 공연이다. 알라딘, 램프의 요정 지니, 자스민 공주가 만들어내는 환상의 동화 나라로 빠져보자.

■장소 : 충남도청 문예회관
■문의 : 041-635-3815

연극 ‘최고의 사랑’

■일시 : 8월 24일
■일상 속 우리들의 순수했던 사랑 이야기와 함께 잠시 옛사랑의 기억을 떠올려 보는 것은 어떨까? 남들에게 평범해 보이지만 나에게 최고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3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아련한 감동과 웃음을 만날 수 있는 연극. 365일 가슴 떨리는 사랑을 꿈꾸는 당신에게 추천한다.

■장소 :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문의 : 042-840-3707

청양 고추·구기자 축제

■일시 : 8월 30일~9월 1일
■청양군 백세건강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는 청양 대표 축제다. 청양고추와 구기자를 직접 구매할 수 있고,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과 체험행사 등을 즐기며 청양의 맛과 멋, 향을 느껴보자.
■장소 : 청양읍 은천동길 16-6
■문의 : 041-940-2302

조각 전시회 ‘꿈꾸는 아이들’

■일시 : 8월 1일~31일
■무더운 여름 시원한 곳이 간절할

때, 시원한 미술관에서 즐기는 전시바캉스를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보령시 소재 모산조형미술관에서 오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꿈꾸는 아이들’ 노대식 조각展을 기획했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조각작품들을 만나보자.
■장소 : 모산조형미술관
■문의 : 041-933-8100

논산시민공원 버스킹

■일시 : ~9월 28일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주말 나들이 장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논산 시민공원으로 한번 떠나보자.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마술쇼, 밴드공연, 뮤지컬 공연 등 다양한 버스킹 공연이 선보인다.

■장소 : 논산 시민공원
■문의 : 041-746-5152

석장리박물관 특별전

■일시 : ~2020년 2월 28일
■공주 석장리박물관 손보기 선생 기념관에서는 ‘바다를 건넌 선사인들’이란 주제로 흑요석에 대한 특별전을 진행하고 있다. 흑요석은 후기 구석기시대에서부터 신석기시대까지 선사시대 인류에 의해 활발히 사용됐다. 일본과 한국에서 출토된 흑요석계 석기들을 통해 바다를 둘러싼 한반도와 일본 열도 간 선사시대 인류의 삶과 문화를 이해해보자.
■장소 : 공주 석장리박물관
■문의 : 041-840-8924

꿈에서도 그리던 그곳 ‘고향집’

변상섭의 그림읽기

고암 이응노-고향집

고암 이응노(1904-1989)의 ‘고향집’(1943)이란 작품이다. 먹을 쓰지 않고 수채화 물감으로 그렸다. 대표작인 문자추상과 균상, 수묵화 등과 대조를 이룬다.

화가의 고향은 마르지 않는 예술혼의 샘물이자 뿌리다. 그래서인지 고향집을 비롯해 흥성의 월산과 용봉산 풍경을 그린 여러 점의 작품을 남겼다. 그뿐만이 아니다. 수덕사 수덕여관에서 산 추억을 떠올려 많은 산사 풍경을 화폭에 옮겼고 뒤뜰 너럭바위에 기념비적인 암각화를 새겨 놓아 많은 사람들이 고암을 추억하게 하고 있다.

고향집이나 다름없는 수덕여관은 고암에게는 특별한 곳이다. 청년 시절 수덕여관에 머물던 나혜석과 교류하면서 예술가의 꿈을 키웠던 곳이고, 동백림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후 쇠약해진 몸을 추스른 뒤 다시



프랑스로 떠났던 화가의 채취를 물씬 풍기게 하는 곳이다.

다시 그림을 읽어보자. 스케치하듯 빠르게 그린 탓에 거칠다. 세련미는 부족하지만 소박한 맛이 돋보인다. 현재 이응노 생가와 별반 다르지 않다. 뒷산을 배경으로 살림집과 헛간채를 클로즈업시켜 그렸다. 마루대신 댓돌이 놓여있고 고무

신 두 켤레가 가지런하다. 멋대로 그린 초가지붕이 넉넉하다. 헛간 추녀 끝에는 쟁기가 놓여 있고 형제인듯 한 꼬마 돌이 뒤뜰에서 막 걸어나온다. 고암의 ‘고향집’을 떠올리며 흥성 이응노 생가를 찾는다면 고암의 예술세계와 화가 이응노를 이해하는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변상섭 충남문화재단 문예진흥부장

판교의 역사를 품은 할미밀망

국미나의 꽃이야기

판교하면 고속도로를 따라 서울로 향하다 마추치는 톨게이트 판교를 떠올린다. 충청남도에도 서천군 북부에 위치한 판교가 있다.

옛 역사를 중심으로 열리는 너더리장은 아우내장이나 강경 장처럼 많은 사람이 모이지는 않지만 서천의 풍부한 해산물과 산지로 이뤄진 판교의 특산물 도토리묵을 비롯해 산나물이 풍부하다.

너더리장은 무엇보다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서 좋다. 개발이라는 명분도 이곳을 피해갔다. 도회지로 떠난 사람들의 빈집에 굳게 닫힌 문 넘어 한가롭게 노니는 고양이 가족이 반갑다.

영화 상영이 끝난 극장 대표소에서 옛 영화의 포스터를 보면서 청바지 입고 다시던 시절이 온다. 술 익는 냄새가 사라진 양조장엔 아직도 향수가 남아있고, 추수철이나 돌아가는 방앗간에서 가래떡 나오길 기다리던 코흘리개 시절이 온다.



할미밀망

사진을 찍어주던 사진관은 이제 모델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카메라 앵글에 담겼다. 주막집에 막걸리가 얼굴에 익어갈 때 한국전쟁의 아픔을 간직한 가슴에 위안의 잔을 기울인다. 그렇게 한 잔술에 과거가 녹아있는 역사의 광장에 할미밀망과 사위질빵에 하얀꽃을 피웠다.

할미밀망(할미질빵)과 사위질빵의 이름은 우리 민족의 삶을 느끼게 한다. 무거운 짐을 많이 지지 못하게 하려는 배려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사회에 다시금 의미를 새겨본다.



뛰어야, 대한민국의 심장이다!

내포칼럼



이 환 의
홍성군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장

한때 우리 충남의 슬로건이 '대한민국의 심장(The Heart Of Korea)'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도별 면적은 6위에 그치지만 주곡인 쌀생산량은 전남과 선두를 다투었고, 다소 느려보이는 어투 때문에 충청인이 때로 코미디 프로그램의 양념처럼 등장했다.

그러나 속깊이 들여다보면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달리 열정과 의지로 꽉차있는 이들이 적지않다.

당장 필자의 주변을 둘러봐도 자신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별종들이 곳곳에서 존재감을 드러낸다.

이웃 마을에는 오리농법 전도사로 불리는 주형로 선생님이 마을만들기 운동에 이어 벼와 메기를 함께 기르고 꽃을 심어 눈을 다원적인 공간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한창이다.

홍동천 아래 자연재배 논은 가을날엔 저마다 생김새가 다른 색색의 벼로 가득차 지역의 새로운 명물로 자리잡았다.

처음에는 갈거나 거름을 넣지도 않고 멀쩡한 논에서 호미모를 심는다고 어르신들이 혀를 찼지만 이제는 부러 구경을 가서 당신이 젊은 시절 재배하던 토종벼들을 눈여겨보신다.

지역화페 운동을 비롯해 조성된 기금을 회원 간에 무이자로 주고받는 독특한 시도는 지역 내 중간지원조직인 마을활력소의 업무중 일부에 불과하다.

달마다 기관단체의 실무자가 모여 지역의 의제를 공유하고 서로 도우며 협력할 방안을 찾아가는 모습은 이미 굳건한 전통으로 자리잡았다.

무언가 절실한 필요가 생기면 누군가가 반드시 깃발을 들어 연대와 협동으로 해결하는 흥동시스템은 지역을 넘어 다른 시군, 아니 우리 충남 전역에 퍼뜨려도 좋을 흥미로운 작동원리다.

그러기에 흥성에는 이미 70년대 중반에 유기농이 도입됐고 신용협동조합이 생겨났으며, 신용사업이 아닌 100% 경제사업을 하는 생산자협동조합이 설립됐다.

덕분에 지역의 활력이 유지되어 예비 귀농귀촌인이 가장 선호하는 귀착지중 하나가 됐다.

필자 역시 흥성이 고향인지라 혹시라도 의존하는 마음이 생길까봐 멀리했지만 아이들 또래가 있는 곳으로 간다는 귀농전 원칙 때문에 이곳에 자리잡을 수밖에 없었다.

아이들 또래가 사는 곳은 부모의 나이도 비슷해서 소통과 공감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 이른바 문화적 소외감이나 도시에 비교되는 상대적 박탈감 또한 경험해본 적이 없을 정도였다.

한때 지역의 속내가 궁금해서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 보니 큰 흐름의 발원지에 학교가 자리하고 있었다.

위대한 평민을 가르침으로 학교와 지역이 긴밀히 소통해야 하며, 성적에 따라 줄세우지 않는 무두무미(無頭無尾)의 산 교훈, 학생들의 인사말조차 관행을 거부하는 실험 정신이 마침내 지역을 완전히 바꿨다.

필자 역시 지역의 분위기에 자연스레 스며들어 농부로 변신한 후배를 주인공으로 '경축, 농부탄생' 현수막을 걸었다.

또 용도의 사용이 농촌사회의 문제로 대두된 특정 제초제가 없어질 때까지 캠페인을 벌였다.

불과 61년 전 관성을 거부하는 남다른 신념으로 학교를 세운 두 선각자의 작은 날개짓이 오늘날 모두가 주시하는 거대한 변화를 이룬 것이다.

필자는 백제의 미소 뒤에 잠재된 충청인 특유의 열정을 믿는다.

그리고 흥성이 그랬듯이 다른 시군도 깨어날 것이라 믿는다. 함께 뛰어야 대한민국의 심장이 될테니 말이다.

농촌서 활동하는 조용한 선구자들
자연재배·지역화폐 등 이끌어
학교, 마을 공동체 중심에 위치
농부 존중받는 지역사회 소망

몸으로 하는 기억

나태주의 풀꽃편지



시인·풀꽃문학관장

요즘 가끔 느끼는 일이다. 사람에겐 이성적, 감성적 기억과 더불어 몸으로 하는 기억도 있을 수 있다는 것. 번번이 책을 쓸 때나 책을 편집할 때 나는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부탁하지 않고 나 스스로 컴퓨터 자판기를 두드려 원고를 작성한다. 물론 독수리 타법이다. 더러는 좋은 문장이나 기사가 있으면 노트에 적어 두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내 마음이나 이성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다. 정서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아니다. 노트에 베껴거나 컴퓨터 자판기를 두드려 보든, 아 그랬어, 그랬지, 바로 그거야, 그렇구나 하는 특별한 자각 같은 것이 오기도 한다. 마치 이것은 지구 반대편으로 여행 갔다가 돌아와서 며칠 시차 적응하는 일과 같고 유년 시절의 음식 맛에 대한 혀의 기억과 닮았고 또 모처럼 고향에 돌아갔을 때 전신을 통한 반응과 같다

이렇게 몸으로 하는 기억은 보다 더 자연 친화적이면서 근원적인 기억이다. 보다 더 본능적이고 깊은 기억이다.

가령 강물을 생각해 보자. 강물을 스쳐 가는 물과 모래와 거기에 사는 물고기들을 떠올려보자. 그들은 결코 사람들처럼 지적이거나 정서적으로 기억하지 않는다. 다만 서로를 알고 서로가 조화를 이루면서 어울릴 뿐이다.

아, 그 아름다움이라니! 지극함이라니! 그것은 바람과 나무와 수풀과 풀과 새들의 관계도 그럴 것이고, 하늘과 구름과 바람과 별들과 벼락이나 천둥의 관계도 그럴 것이다.

그것은 내가 외출에서 돌아와 실내로 들어왔을 때 후끈 느껴지는 공기나 냄새에서도 그렇고 밤의 시간 늦도록 잠을 자지 않고 기다려주는 아내의 눈빛이나 몸짓이나 체취에서도 두루 느껴지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이 진정 그러하다면 아내나 내가 강물과 모래나 물고기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다.

하늘에 오가는 구름이나 바람의 어울림과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무심한 듯 깊은 어울림이여, 인식을 넘어서 또 하나의 인식이며, 나는 이러한 세계를 굳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묶어서 부르고 싶지 않다.

조선통신사의 성신교린(誠信交隣)

생생현장리포트



신용희
금강뉴스 대표

연일 30도를 넘는 폭염으로 힘든 여름을 보내는 가운데 'NO 아베' 시위는 폭염보다 더 뜨겁게 전국을 달구고 있다.

시민들의 촛불시위 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에도 '역사왜곡, 경제침략',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 등의 댓글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역사 문제, 독도 문제와 더불어 이번 경제보복 사태로 양국 관계는 어느 때보다 교착된 국면에서 있다.

한편 일본의 시민사회단체도 '아베 정권 규탄' 시위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는 '반일'이 아닌 'NO 아베'를 외치면서 일본 시민의 뜻이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상호 우호와 침략의 양극의 날 속에서 오랜 세월을 지내왔고 앞으로도 이웃으로 함께 가야 할 지리적 운명을 지닌 양국이다.

백제시대부터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는가 하면, 500여 년 전 임진왜란 등 뿌리 깊은 갈등은 커다란 응어리를 갖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이 갈등은 양국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한일 양국의 2000년 역사가 말해 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조선시대 양국을 오간 조선통신사가 갖는 역사적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선조들이 일본에 조선통신사를 보낸 것은 약탈과 전쟁의 시대에서 벗어나 상생의 길을 가고자 하는데서 비롯되었다.

조선통신사가 양국의 우호친선 사절로 왕래하던 200년 동안 동아시아는 평화적 안정이 유지되었고 양국의 문화교류도 활발했다.

2017년 10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통신사 기록물은 1607년(선조 10)부터 1811년까지 조선이 에도막부의 초청으로 12차례 일본에 파견한 통신사와 관련한 자료를 말한다.

통신사 기록물은 조선과 일본이 전쟁의 비참함과 함께 평화를 구축해 나간 역사 경험과 지혜를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양국이 대등한 입장에서 상대를 존중한 성신교린(誠信交隣)의 정신을 품고 있다.

조선통신사의 성신교린(誠信交隣-서로 속이지 않고, 싸우지 않고, 진실로써 교류한다)정신은 현재의 한일 우호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때 일수록 지역간 시민교류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공주는 역사적으로 한일 교류사의 중요한 축이 되어 왔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양국의 시민교류에 빨간불이 켜졌다. 당장 9월 28일부터 개최될 백제문화제에 매년 참석하던 일본 방문객의 참석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시민단체와 공무원 관계자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조선통신사 성신교린' 뜻이 전해지는 현해탄은 아직 멀지만 한 것인가?

이이·성혼 학맥 이은 다양한 학파와 학맥의 공존

충남유교이야기

㉑충청유교의 개방성과 다양성

'충청유교'라는 말은 신조어이다.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현대에 이르러 기까지도 충청유교나 충청유학이라는 말은 거의 사용된 적이 없다. 지역성으로 말하자면 기호유학 또는 호서유학이라는 표현이 되겠지만, 이 역시 근대에 와서야 만들어진 말이다.

'기호'나 '호서'라는 지역 분은 조선시대에도 있었지만, 이 지명에 '유학'이라는 용어를 조합한 경우는 없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영·정조 시대에 비로소 '기호유생', '호서유생'이라는 말이 한두 군데 기재될 뿐이고, 광해군조에 '충청유생'이라는 말도 한 번 보인다.

전통적 개념으로 호서지방의 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충청유교'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

예로부터 충청은 서울과 지리적으



율곡 이이 초상(사진 왼쪽)과 우계 성혼 초상(사진 오른쪽)

이이의 학통을 물려받은 율곡학파가 큰 영향을 끼쳤지만, 성혼의 학맥을 이은 우계학파도 지역 유학의 한 축을 담당했다.

율곡학파에는 예학과 성리학을 발전시키며 중앙정계에서 활약한 학자들이 많았다면, 우계학파는 재야에서 학문과 덕행을 닦는 선비들이 주로 배출되었다.

우계학파는 특히 개방적인 학풍을 형성하여, 이황의 성리학을 수용하여 절충적 성격을 보였다. 성리학뿐만 아니라 양명학도 주도적으로 받아들였고, 일부 학자는 도가의 철학에 큰 관심을 가지기도 했다.

조선 후기 홍대용·김정희와 같은 걸출한 실학자가 등장한 점, 같은 스승의 문하에서 인물성 동이론의 이견이 등장한 점, 한말 충청지역 내에서 위정척사파와 개화파가 동시에 발전해 나간 것도 이러한 개방성과 다양성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치영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로 가깝고 경기·강원·영호남과 경계를 접한 사통팔달의 지역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잦았다.

또 서해와 내포를 통해 인적·물적 교류도 용이하여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기에도 편리했다. 이러한 산업·문화적 배경은 유교사상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충청유교의 가장 큰 특성은 다양한 학파와 학맥이 발달했다 점이다. 퇴계학맥 일변도로 흘러간 영남지역의 유학과는 달리, 호서지역의 유학은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었다.



“아내 건강이 최우선...오래 함께하고 파”

91세, 전국 최고령 요양보호사
하루에 8시간씩 공부하며 성과



치매 환자인 아내를 간호하기 위해 91세 나이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최대식(예산읍·사진) 할아버지의 순애보가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 최대식 할아버지를 만난 곳은 예산역 인근 간호학원이었다.

“이곳 학원에 다니면서 하루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쉬는 시간 30분. 20일 동안 하루 8시간씩 공부했다. 실습도 하고 일지도 꼬박꼬박 썼다. 합격 소식을 듣고 아내에게 얘기했더니 거짓말하지 말라며 믿지 않았다. 오직 아내를 내가 간호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서울이 고향인 최 할아버지는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 37살 늦은 나이에 결혼했다. 결혼 후 10년 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대전과 천안을 거쳐 예산에 터를 잡은 건 50년 전이다. 할머니의 고향이 예산과 가까운 청양인 데다 당시 예산에 충남방직 공장이 있어 그 주변에서 장사를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시계점, 할머니는 양

품점을 운영했다. 19년 전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자연스럽게 가게를 정리하고 오롯이 아내와 함께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할머니에게 이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할아버지에게 왜 통장을 가져갔냐고 계속해서 묻는 등 간혹 기억력이 온전치 않았다. 당뇨와 혈압 검진 겸 병원을 찾았다가 할머니에게 치매 초기증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때부터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간호하며 집안일을 도맡아 했다. 그러던 중 지난 1월 치매 치료를 위해 찾은 보건소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권유를 받았다. 할아버지는 바로 ‘예산간호학원부설 요양보호사교육원’으로 매일같이 출근하며 공부를 시작했다.

“지난 5월 어버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님께서 초청해 주셔서 만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꿈만 같다. 대통령께서 치매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하셨다. 치매 환자는 가끔적이면 가족들이 이해해 줘야 된다. 환자가 별의별 소리 다 하고 엉뚱한 소리해도 20~30분 정도 지나면 다시 돌아온다.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같이 맞대응하면 절대 안 된다”

가족이 직접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환자를 부양하면 하루 1시간 기준 한 달 25만 원, 1시간30분 기준 50만~60만 원 가량 정부가 지원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최 할아버지는 최근 해전대학교에서 진행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함께 해온 50년, 그리고 남은 인생 모두 최 할아버지는 아내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돌볼 것이라고 전했다. 서로 의지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할아버지의 작은 소망이 이뤄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보련다.

김경미/충주신문
rlrudal4767@daum.net

나눔으로 하나 되는 ‘알뜰장터’ 호응

주민자치1번지

-계룡 대동항토방아파트

중고물품 판매하며 화합 도모

아파트 소통문화 모범사례 눈길

계룡시 염사면 대동항토방 아파트는 신도시 건설에 따른 군인가족 인 구유입에 맞춰 지난 2000년 11월 조성됐다. 632가구 2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중소단지이다. 이 아파트에는 시 승격 이전부터 이 지역에서 농축산업 등에 종사해오던 원주민을 비롯해 계룡대 근무 군인과 그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아파트의 15%가 군 관사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개별거주 군인가족들까지 고려하면 군인가족이 입주민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아파트의 특성 상 이웃과의 교류가 쉽지 않은 데다 군인가족의 경우 오래 정착하지 못하고 이주하는 경우가 많아 입주민 간 화합과 소통은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 간 화합과 소통이 곧 발전의 원동력을 인식하고 소통을 위한 다양한 고민을 시작했다.

우선 2017년 충청남도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마중물 지원 사업에 ‘나눔으로 하나 되는 알뜰 장터’ 사업을 신청, 매월 1회 알뜰장터를 열어 아나바다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먹거리 장터 운영, 한마음 음악회 개최 등 주민 소통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했다.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다양한 농산

물과 집에서 잠자고 있던 여러 가지 중고물품이 시장에 나오면서 알뜰장터는 만물장터로 변해갔다.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기회를 갖게 됐다.

또 알뜰장터에는 입주민으로 구성된 의용소방대원들이 참여해 심폐소생술, 심장충격기 사용법 시연회를 열어 화재 예방과 안전의식 확산에도 힘썼다.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토너도 운영하는 한편 어울림 작은 음악회도 열어 행사는 더욱 풍성해졌다. 입주민 간 갈등해소를 위해 시작한 ‘알뜰장터’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정이 통하는 소통과 화합의 한마당으로 발전했다.

행사를 주관한 입주자대표회의 한민희 대표는 “장터를 운영하면서 일부 입주민들로부터 주차장을 차지하는 데 따른 불편함,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이 또한 입주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점”이라며 “알뜰장터의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화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구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웃 간 얼굴도 모르고 인사조차 나누지 않는 게 아파트 생활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요즘, 대동 항토방 아파트의 알뜰장터는 아파트 생활의 새로운 모습을 제안한다. 서로 힘을 모아 갈등을 해결하고 소통하고 화합하며 더 좋은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아파트 단지는 하나의 살기 좋은 ‘마을’이 되고 있다.

/충남형 동네자치 성과와 방향 사례집 /김혜동 khdf226@korea.kr



나눔으로 하나 되는 알뜰장터에서 주민들이 중고물품을 거래하고 있다.

공연예술 특공대...합창문화 꽃 피우다

당진시립합창단, 공연활동 활발
10여 아마추어팀 창단 계기



당진시립합창단원들이 공연을 앞두고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지역의 합창문화를 꽃피우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당진시립합창단은 지난 2005년 군립예술단으로 탄생했다. 당시에는 무용단원과 합창단원이 함께했지만 무용단이 폐지되면서 당진시립예술단은 합창단으로 자리하게 됐다.

현재 당진에는 당진시소년소녀합창단, 당진시민합창단, 엔젤스카이어, 에듀카이어, 남사복어린이합창단, 당진시 예술소년합창단 등 10곳이 넘는 아마추어 합창단이 있다. 그리고 이 합창단들은 당진시립합창단이 출범한 이후에 생겨났고 이를 이끌고 있는 반가운 얼굴들이 당진시립합창단의 전·현직단원이다.

시민들과 지역이 함께 하는 과정에서 아픔도 있었다. 초창기부터 당진시립합

창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4명 중 하나인 강태옥 단원은 학교에서 뮤지컬을 가르치면서 다문화가정합창단의 지휘를 맡아 전국대회 우승을 만들었다.

사실 시립합창단은 아마추어 합창단을 꾸리는 것뿐만 아니라 당진대합창제를 열어 아마추어합창단과 함께하는 합창축제 역시 주관하고 있다. 당진대합창제는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다.

당진시에서 다양한 합창문화를 이끌고 있는 시립합창단의 지휘자와 단원은

모두 공채로 뽑힌 예술직 공무원이다. 처음 시립합창단원이 되었던 때를 떠올리는 단원들은 음악을 포기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기뻐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합창단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단원들은 주 12시간 근무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물론 힘든 시기도 있었다. 합창이라는 예술이 그리고 시립합창단원들이 지역에 기여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버티게 해 주는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다.

테너 이윤수 단원은 “단원들은 항상 ‘공연예술 특공대’라는 생각으로 무대에 오른다”면서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찾아주셔서 문화적 혜택을 누리 고 그렇게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시립합창단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정운성 / 당진신문
psychojys@daum.net



사서들의 서재



소금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이 책은 소금의 기능과 인체 영향을 생리학적으로 다룬 책이다. 그동안 식품학계나 의학계의 소금에 대한 실험 오류 및 오해로 인한 혼란을 정리하고, 소금이 인체와 각종 질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리한 책이다.

저자는 목디스크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며 유명 대학병원, 통증클리닉, 한방병원, 카이로프랙틱 치료 등을 하다 결국 수술대에 올랐다.

그러나 수술 후 전신 마비로 시위하는 환자의 가족들을 보며 수술대에서 내려왔고, 수술을 받지 않았던 결정이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말한다.

저자는 인내대를 졸업했고, 2012년

‘고혈압 산소가 길이다’라는 책을 통해 의학사상 최초로 고혈압의 원인과 치유법을 밝혔고, ‘암 산소에 답이 있다’를 통해 역시 의학사상 최초로 암의 원인과 치유의 메커니즘을 체계화시킨 바 있다.

그 외 ‘암 걸을 힘만 있으면 극복할 수 있다’, ‘당뇨병 약 없이 완치할 수 있다’ 등의 저서가 있다.

책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섭취하는 식품 중 산소나 물처럼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고 우리 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분 중 하나가 소금이라고 주장한다.

사람 몸에 소금이 부족하면 반드시 건강에 이상이 생기지만 의학계에서는 근거 없이 저염식이나, 심지

어 무염식을 주장한다고 비판한다.

이 책은 총 8부와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소금으로 건강을 회복하다’에서는 병원 치료를 포기하고 병의 원인을 연구하다 소금을 알게 되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된 과정을 설명한다. 2부는 소금에 대한 오해가 생긴 이유, 3부는 소금의 기능과 활용, 4부에서는 소금이 암, 고혈압, 당뇨, 신장병을 예방·치료하는데 도움이 되고, 소금이 최고의 장수 식품인 이유를 설명한다. 5부에서는 소금이 간염, 아토피, 탈모, 변비, 요로결석을 치료하고, 뇌경색이나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며, 6부는 소금과 미네랄, 7부는 소금의 품질과 섭취량, 8부는 소금 활용법에 관한 내용이다.

부록에는 소금에 대해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의학계(대학교수)의 주

장에 반론을 제기하는 내용도 있다. 필자는 책의 저자와 비슷하게 소금(정확히는 죽염)을 먹고 건강이 좋아진 경험이 있어 무조건적인 저염식을 신뢰하지 않는다.

소금은 과거 부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 것 같아 안타깝다. 혈액, 체액, 엄마의 양수, 링거주사액은 모두 염분 농도가 0.9%라고 한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 몸의 염분 농도가 0.9% 이하로 떨어지면 병이 생기는 것은 아닐지 의심해 본다.



박 광 일
충남도서관 사서

“황새가 살지 못하는 곳엔 사람도 살 수가 없지요”

더행복한마을
(21)예산 황새권역마을

뚝방에서 즐기는 논생물조사
금개구리·산골조개 되돌아와
황새 복원 후 되살아난 생태

9월 7-8일 첫 황새축제 앞뒤
황새 자연복귀 축하 공연
황새사랑길 걷기 등 행사 '다채'



황새공원의 포토존 문화관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박상규 광시중 교장, 김수경 박사, 이종한 예산군 천연기념물팀장, 한영희 황새권역센터 사무장(사진 왼쪽부터 차례로)

다음 달 9월 첫 주말, 예산군 황새 권역과 황새공원 일대에선 첫 번째 ‘예산 황새축제’가 개최된다. 지난 2013년 시목1리, 가덕1리, 대리 내 다섯 마을이 황새권역으로 지정되고, 2015년 황새공원이 문을 연 이후 처음으로 준비한 축제다.

그간 이 마을에선 황새 21마리가 부화했고, 총 50마리를 자연으로 돌려보냈으며, 현재 공원 내 사육장에서 87마리를 보호 사육 중이다. 천연기념물 제199호로 지정된 황새 복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예산군 광시면 일대가 선정된 지 10년만의 경사이기도 하다.

한영희 황새권역센터 사무장은 황

새권역이 들어선다는 소문이 돌 무렵부터 마을사업에 참여해 올해로 10년차를 맞이까지 그간의 세월이 “황새 덕분에 얻은 것이 더 많았기에 행복했던 시간”이라고 기억했다.

황새권역사업은 황새 야생방사에 적합한 환경조성과 주민공생을 목표로 지난 2013년부터 본격 추진됐다. 마을이 선정될 수 있었던 까닭은 황새가 깃들 만한 산과 넓은 들이 입지해 있고 먹이활동을 할 수 있는 삼교천과 무한천 등이 흘러 습지가 발달

한 자연환경도 제격이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2010년부터 황새생태 농법을 시행하는 등 제초제와 살충제를 뿌리지 않고 화학비료의 사용도 억제하는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있다. 이 방법은 황새의 서식엔 최적이지만, 다른 곳보다 모내기가 보름에서 20일가량 늦고 수확량도 적어 불편도 따른다.

그러나 최근 마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뚝방에서의 논생물조사 결과,

61종의 생물종이 발견되고 그중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금개구리와 깨끗한 물에서만 서식하는 산골조개가 발견되는 등 마을 생태가 되살아나는 모습을 직접 경험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불편을 웃어 넘길 수 있게 됐다.

황새공원이 조성되고 공원 내 황새 문화관과 황새오픈장, 생태습지, 사육동과 사육장 등의 시설이 갖춰지며 권역과 공원은 유기적 체계 아래 공존과 상생을 거듭해 오고 있다. 특

히 황새공원에서 이뤄지는 논생물체험 등의 생태체험과 황새사랑길을 중심으로 한 트레킹 체험은 널리 입소문을 타며 방문객을 끌어들이었다. 이와 함께 마을에서 재배하는 쌀과 잡곡 등 친환경농산물을 ‘황새랑’ 브랜드로 개발해 판매하고, 문화관 내 카페 운영을 통해 개개인은 물론 권역 자체의 소득원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덕분에 봄이면 산나물 축제, 여름엔 논생물축제와 별빛 축제, 가을엔 반딧불이 축제, 겨울엔 감장 축제 등 사시사철 끊이지 않는 축제 콘텐츠로 사시사철 방문객이 붐비는 곳이 됐다.

황새 복원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황새공원이 전국 학생들의 생태체험 장소로 인기를 끌기까지 주민들 못지않은 애정과 고생을 함께 기울여 준 사람들이 있다. 박상규 광시중 교장은 황새를 콘텐츠로 한 다양한 문화상품 및 스토리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제시하고, 김수경 박사는 황새칼럼을 통해 사업의 과정과 결과를 알기 쉽게 소개한다. 그 뒤에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는 예산군과 이종한 군 천연기념물팀장의 노고까지. 황새를 콘텐츠로 한 마을의 발전과 성장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손유진 syj0319@korea.kr

“스무해 그린 어머니...뵙고 싶습니다”

유영진 씨, 모진 인생살이
교통사고로 기억 흐릿해져
보고픈 어머니 ‘눈물로 그려’



[당진] “엄마가 보고 싶는데 생각이 잘 안나요. 한번 꼭 만나고 싶습니다”

유영진(56·사진) 씨가 기억하는 것은 많지 않다. 사고 후에는 기억도 차츰 흐려지고, 튼튼했던 몸도 사고후유증으로 망가져 영진 씨는 두 다리로 걷지 못한다.

어쩌면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 늙는지도 모르겠다며 그는 좀 더 건강하고 젊었을 때, 부러 찾지 않은 것을 후회하기도 했다.

어릴 적 영진씨는 예산군 삼교읍 두리1구라는 동네에서 살았다. 3남 2녀 중 넷째로 태어났다는 영진 씨는 지난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어머니를 마음속으로 그려보고 있다.

“보고 싶는데 생각이 잘 안나요. 얼 굴은 생각이 납니다. 엄마가 무얼 좋아했는지, 무슨 말을 자주 했는지. 보고 싶다는 마음은 있는데 엄마에 대해서는 생각이 안 나요”

영진 씨 기억속의 어머니는 올해 일흔다섯 정도 되지 않았을까 추측할 뿐이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덕산과 고덕, 예산, 흥성의 장으로 씨앗장사를 다녔다. 영진 씨가 10살의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스스로 다섯 아이를 키워내야 했기 때문에 기억속의 어머니는 아마 먹고 사는 게 가장 힘들었을 거라고 했다. 4년 전 교통사고로 기억이 드문드문 날 뿐이다. 먹고 사는 게 힘들어 어느 날 자신

의 의지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서울의 한 봉제공장으로 돈을 벌기위해 떠났고 1997년 IMF때 일을 그만뒀다.

그 뒤로는 중국집에서 배달을 하거나 서산 팔봉산 어송리 언저리에서 농사를 지었다. 당진으로 와서는 공사장 현장인부로 일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그렇게 여기저기를 떠돌았다는 그는 스스로의 사진 한 장도, 가족의 사진도, 어머니의 사진도 없다고 한다.

영진 씨는 현재 홀로 당진에 거주하고 있다.

위로 형이 돌리고 누나는 몇 해 전 세상을 떠났다. 밑으로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영진 씨는 형제 누구와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

유영진 씨가 찾는 어머니의 존함은 김중순. 묘금도 유(劉)씨라고 한다.

아버지 존함은 유백만이고 어머니가 부어에서 살고 있다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그가 기억하는 마지막 소식이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전하는 그의 눈가가 자리를 뜨는 순간까지 축축했다.

배창섭 / 당진신문
bcs7881@hanmail.net

‘돈암서원’ 꽃담에 새겨진 충남 정신

새로 배우는 충남학(16)
소통하면서 끈기 있는 포용
겸손하고 절제의 정신 담겨



돈암서원

역사적으로 역사와 문화가 융성했던 시기에는 어김없이 그 시대를 이끌었던 시대정신이 있었고 주체들이 있었다. 그렇다면 오늘의 충남 시대정신과 주체는 무엇일까?

첫째로는 자연환경에서 비롯된 온화하고 원만한 품성으로 의리와 충절의 선비정신을 들 수 있고, 둘째로는 백제 문화의 선진과 개방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충남 시대정신의 근원을 우리는 논산 돈암서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돈암서원은 충남예학의 종장으로 추앙받는 사계 김장생을 추모하기 위해 1634년(인조 12)장건됐다. 후에 김집, 송준길, 송시열을 추가 배향하고, 현재는 사적 383호로 지정돼 있다. 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서원 아홉 곳 중의 한 곳이다.

충남학 강의시간에 돈암서원에 가 본 적이 있냐고 물어 보면 많은 분들이 가봤다고 하지만, 꽃담에 새겨진 열두 글자를 보셨냐고 물으면 거의 보신 분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건물 외형만 보고 그 서원의 정신이나 특성을 지나쳐 버렸기 때문 이리라.

다른 서원에서는 볼 수 없는 내삼문 양쪽에 기와로 형상화한 지부해함(地負海涵), 서일화풍(瑞日和風), 박문약례(博文約禮)의 가르침이다. 나는 이를 충남 정신의 근원이라 생각한다. 지부해함(地負海涵)은 대지가 만물

을 짊어지고 바다가 만전을 받아들이듯 포용한다는 뜻이다. 배움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오늘날 내 편이 아니면 틀렸거나 적이라는 편견과 옹졸함에서 벗어나야 함을 가르친다. 충남인들이 넉넉한 마음을 가졌다는 평가를 듣는 것은 여기에서 비롯된 뜻이라고 생각한다.

서일화풍(瑞日和風)은 상서로운 햇살과 온화한 바람이다. 상서로운 해와 구름, 온화한 바람과 단비가 만물을 자라게 하듯이 상대방을 배려하고 응대하면서 소통하면서 널리 이해하고 포용하는 은근과 끈기 정신이다.

박문약례(博文約禮)는 지식을 넓히고 행동은 예의에 맞게 하라는 가르침이다. 배움을 통해 지식을 확장하면서 자만하지 말고 예에 맞게 언행을 절제할 수 있어, 잘 익은 벼 이삭이 고개를 숙이듯이 겸손하고 절제해야 함을 가르치는 뜻이다.

박고지금(博古知今)이라 했다. 옛것을 깊이 올바로 알아서 오늘의 교훈으로 삼고 되살려야 한다. 지나간 역사에서 교훈을 배워야 하고, 선조들의 가르침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

/인창욱 (재)충남평생교육원 충남학 강사

우정본부, ‘꽃지 홍보’ 우표 발행

우정사업본부가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지’로 ‘태안 꽃지해변’ 기념 우표를 발행하고 판매에 돌입했다.

이 기념 우표는 파도가 밀려오는 할미·할아버바위를 뒤로 하고 유채꽃이 만발한 꽃지 해변을 한폭의 그림처럼

담고 있다. CNN이 선정한 세계적인 저녁노을로 선정되는 등 서해안의 대표적인 노을로 자리를 잡은 꽃지 해변이 또다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지’로 선정돼 기념 우표가 발행된 것.



신문용 / 주간태안신문
shin0635@hanmail.net



도내 시·군 日경제도발 대응

시군	피해우려업종	조치 및 대응
천안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육성자금 310억 신속 집행
아산		수출규제 애로센터 설치
당진	-	시민 사회단체 불매운동
부여		민관 우호 교류 무기 연기, 일본산 제품 거래중단
논산	-	日 사죄 촉구 결의대회 등
홍성		전국33개 의병도시 연대, 부당 수출규제 중단 촉구
서산	-	중학생 교류사업 중단, 경영안전자금 지원
보령		일 홀스테이 중단
태안	선박 관련	우호협력도시방문 취소
공주	-	총 결기대회·불매운동
예산계룡·서천		경제위기대책본부 가동, 도서관 일본어 강좌 폐쇄
금산·청양	-	결기대회·불매운동 등



주민들이 예산 봉산면 봉림리 천년느티나무에서 칠석제를 올리고 있다.

日 고약한 경제도발...충절 고장이 분노했다

백제와의 인연 등으로 우호협력 교류가 활발했던 충절의 고장 충남 시군들이 분노하고 있다.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한국 수출 우대국 제외)로 경제도발이 본격화되면서 충남지역 지자체들이 규제 철회요구와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천안시는 13개 경제 관련 기관에 '피해 신고 접수창구'를 운영하는 등 민관합동 대응체계 시스템 구축하고 있다. 천안은 피해 신고가 접수된 기업을 파악해 세제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천안시 육성자금 310억 신속히 지원하는 한편 핵심소재 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해 4년간 120억 원을 투입, 천안실현기술(Enabling-Tech)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산시는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을 수립하는 등 정책수단을 최대한 동원하기로 했다.

태안군은 일본에 바지락, 모시조개, 유기농 고춧가루 등을 수출하는 업체와 디젤엔진 및 선외기 등 일본 수입 부품을 사용하는 선박관련 업체의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현재 태안은 연간 300만 달러의 농·수산물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선박관련업체 42곳이 연 100억 원대 규모의 부품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태안군은 8월에 예정돼 있던 태안군 우호도시 일본 '시라하마정'의 태안 방문을 전격 취소한데 이어 됐으며, '시라하마정' 초청 불꽃놀이 행사 참석을 전격 취소했다.

당진에서는 당진여성단체협의회가 나서 아베정권의 경제 보복을 규탄하고 대대적인 불매 운동에 나서고 있다. 옛 백제의 수도로 역사적으로 일본과 관계가 깊은 부여군은 일본의 경제도발에 대응한 비상대책반 3개반을 구성하고 조달, 수의계약, 용역임차 등 모든 계약에 있어 일본산 제품 거래를 중단했다. 또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와의 모든 우호협력과 교류를 무기한 연기했다.

부여군여성단체협의회는 5일 일본제품 불매 캠페인을 벌였고, 12일에는 여성농업인 규탄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군은 민간부분에서의 보이콧재팬 생활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논산에서는 논산자율방범대, 논산시여성단체협의회, 논산시교통장애회의의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성명 발표가

이어졌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조치는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비열한 경제보복"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앞에 진심으로 일제의 만행을 사죄하며 용서를 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주시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산성시장 문화공원에서 50여 시민단체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아베정부 경제보복 규탄 총결기대회를 규탄한다.

홍성군은 일본의 경제침탈에 대해 33개 의병도시와 함께 대응에 나섰다.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회장인 김석환 홍성군수는 일본의 경제침탈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서산시는 중학생과 교류를 중단하는 등 민관 교류 중단을 선언했으며, 보령시는 피해 기업의 경영안전 자금 10억 원을 특별경영안전자금으로 지원한다.

충남의 시군들은 100년 전 나라사랑 정신으로 의병들이 지켜낸 대한민국과 국민주권시대를 상기하고 경제침탈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일본에 대해 의병의 마음으로 각계각층의 민간단체와 국민모두가 하나의 목소리를 대응하자고 촉구했다.

/시군 종합·도정신문팀

예산 봉림리 천년느티나무 칠석제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

[예산] 예산군 봉산면 봉림리는 예산지명 1100주년을 기념해 7일 천년느티나무 칠석제를 개최했다.

봉산면이 주최하고 봉림리 천년느티나무 보존회가 주관하는 이번 칠석제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칠석제를 변형 없이 복원해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 육성하고 주민 간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 열렸다.

천년느티나무는 고려조 제8대 왕인 현종(1009-1031년) 시절 늙은 어머니를 모시던 선비가 잦은 거란족의 침

입으로 '효도보다 나라를 위한 충성이 먼저'라는 신념으로 가족을 떠나면서 느티나무 가지를 잘라 심어놓고 간 것이 자라 지금에 이르렀는 설화가 전해진다. 결국 선비는 돌아오지 못했고, 선비의 아내의 자아비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며 매일 밤 정안수를 떠 놓고 치성을 드린 후 그 물을 느티나무에 줬다고 한다.

주민들은 매년 칠월칠석날 시골 선비의 송고한 충절과 아낙의 효심을 기리는 칠석제를 올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예산군 제공

서천군,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서천] 서천군은 오는 9월부터 만 6세까지 지급해오던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하기로 했다. 84개월 지급한다.

작년 9월 시작한 아동수당은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이에 서천군은 연령을 만 7세 미만

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 서천군에는 약 270명의 나이가 초과된 아동들이 다시 수당을 받게 된다. 이 경우에는 중단 기간 동안의 수당은 소급하지 않으며 별도의 신청 없이 받을 수 있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와 서천군에서 7, 8월 중에 사전안내문과 문자메시지 알림을 발송할 예정이다.

/서천군 제공

대평초, 문화예술공간으로 탄생

코스모스 파종하고

교실엔 미술 작품 전시

폐교 뒤 졸업생들 재활용 결실

[홍성] 옛 대평초 교실에 들어서면 미술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대평초등학교총동문회는 옛 대평초등학교에서 오는 31일까지 '코스모스 축제와 작품전시회' 무료관람 행사를 진행한다.

대평초 운동장에는 색색의 코스모스들이 피어나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자아내고 있다. 총동문회가 폐교된 모교를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되살리겠

다는 각오로 지난 4월 코스모스를 파종한 결과다. 코스모스 꽃길을 지나 교실로 올라서면 미술 작가들의 서예, 서양화, 공예 작품들도 만날 수 있다.

지난 2014년 3월에 폐교된 이후 6년간 이렇다할 계획없이 방치됐던 광천읍 옛 대평초등학교의 부지와 건물을 재활용하려는 이 학교 졸업생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이 학교 졸업생들이 직접 풀을 베고 거름을 주는 등의 노력과 공을 들인 결과 학교 운동장 2000평은 코스모스 정원으로 탈바꿈했다. 또 교실로 사용됐던 2층짜리 학교건물은 미술작품 전시공간으로 재탄생했다.



문화전시실로 리모델링한 대평초 교실

하지만 광신초와 광남초, 광천여중, 광성초, 장곡초 오서분교, 결성중 등 7개 폐교는 아직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한기원 / 홍주신문 hjn@hjn24.com

만세보령주, 세계적 명주 만든다

[보령] 보령을 대표하는 약주류 '만세보령주'가 세계적인 명주로 도약하기 위한 출사표를 던졌다.

2019년도 충남술 TOP 10에 선정된 '만세보령주'는 순수하게 참쌀, 누룩, 물을 배합해 만든 약주로 성주산의 깨끗한 물로 주조된다.

본격적으로 생산된 지난해에는 서울과 수도권, 대전 등지로 2만 병을 판매하며 보령 전통주의 명성을 알리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보령시전통주연구회 회원들이 주관해 보령의 농산물

을 활용한 '술향', '미산미주', '홀피귀향주' 등 자체 연구개발한 14종의 과제 연구주에 대한 시음평가회를 가졌고, 같은 해 11월 열린 제7회 전국가양주 주인(酒人) 선발대회에서는 보령 전통주연구회 조성희 회장이 대상을, 김정순 회원이 장려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거뒀다.

만세보령주는 약주 500ml 1만2000원, 750ml 1만7800원, 탁주(막걸리)는 500ml 4000원, 750ml 6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보령시 제공

밤 껍질 활용 조청 제조 성공



특허등록 마쳐...상용화 착수

[공주] 공주시는 밤 내피(올피)를 활용한 조청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등록을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술은 밤 내피(올피)의 유용한 성분을 활용해 조청 제조 시 고구밥과 엇기름과 함께 당화해 올피의 떫은맛을 극복하고 조청의 단맛을 조화

롭게 만들어 기호도가 매우 우수하다.

시는 이 같은 밤 내피를 활용한 조청 제조방법을 지난 6월 특허청에 특허 등록했으며, 연구 개발된 제조기술은 관내 조청 생산업체에 이전해 이미 상용화에 들어갔다.

간밤 가공 시 흔히 폐기되는 밤 내피(올피)는 밤 함량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유의 떫은맛과 수렴효과, 기능성 등으로 인해 식품보다는 일부 화장품 소재로 사용돼 왔다.

/공주시 제공



서산호수공원 풍성한 연꽃

서산 호수공원이 연꽃으로 아름답게 수놓아졌다. 한 때 악취로 인해 도심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었던 이곳은 2008년 중앙호수공원으로 재탄생되면서 시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전미혜 / 충남포커스 jmhshr@hanmail.net



과보 이

빛을
되찾다

(光復)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일제식민지에서 벗어나기 까지 충남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투쟁은 곳곳에서 빛을 발했다. 홍성 출신 김좌진은 충남 지역 출신 인사들을 지도하며 만주지역에서의 독립항쟁을 이끌었다. 천안의 이동녕은 상해의 임시정부에서 큰 역할을 했으며 상해 홍구공원 의거를 성공리에 수행한 윤봉길도 예산 출신 인사이다. 홍주의병장 김복한, 홍성출신의 한용운, 천안 아우내장터에서 순국한 유관순 등이 모두 충남 출신의 걸출한 독립운동가이다. 2019년 현재까지 충남 출신 독립운동가 1342명이 항일독립운동에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공훈을 수여받았다. 조국 광복을 이끈 충남 독립운동가의 활동을 연대별로 정리했다.

/김혜동 khd1226@korea.kr

1880년대



- 1894년 · 갑오변란, 동학농민혁명 공주 우금치 전투
- 1895년 · 을미사변, 유성의병 봉기
- 1895년 · 단발령, 홍주의병
- 1896년 · 이상재가 서재필과 독립협회 창립
- 1897년 · 23부 폐지, 13도로 개편에 따른 충청남도 신설



1900년대

- 1905년 · 을사늑약, 자결 순국열사 (오강표, 이설, 최익현, 홍범식 등)
- 1906년 · 민중식과 홍주의병
- 1907년 · 국채보상운동 발발, 충남지역 참여
- 1908년 · 당진 소난지도 의병 전투
- 1907년 · 충남 곳곳 의병 전개 - 10년 (공주, 괴산, 연산, 해미, 홍주, 당진, 남포, 정산 등)

1910년대

- 1910년 · 한일병합, 자결 순국열사(김지수, 이학순, 이근주, 조장하 등)
· 문양목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대동보국회 조직
- 1913년 · 독립의군부 결성, 충남 출신 40여명 참여
- 1917년 · 광복회 충청도지부 결성
- 1919년 · 3.1독립만세운동 전개, 충남에서도 2개월동안 전시군에서 발발(3일-대전과 예산, 7일-홍성, 10일-논산과 당진, 11일-아산, 12일-공주, 13일-연기, 14일-천안, 16일-서산 발발)
· 한성임시정부 수립, 충남 출신 이만직, 이세영, 윤용주, 이내수 등 참여
· 파리강화회의에서 한국독립 청원을 위한 '파리장서운동'전개
· 상해임시정부 수립, 충남 출신 이동녕, 이세영, 신채호 등 참여

1920년대



- 1920년 · 김좌진장군의 청산리전투
- 1922년 · 민립대학기성회 조직, 당진, 아산, 예산 등 지방부 조직
- 1926년 · 6.10만세운동, 충남지역 만세운동 전개
- 1926년 · 한용운 '남의 침묵' 발간
- 1927년 · 신간회 결성, 충남출신 한용운, 신채호, 홍명희 등 발기인으로 활약
- 1923년 · 민족차별 등에 따른 충남지역 동맹휴학(청양 화성공립보통학교, 공주고보, ~30년 영명학교, 홍성공업전수학교, 예산공립농업학교, 부여공립농업학교 등)

1930년대



- 1932년 · 충남도청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
· 예산농업학교적색독서회사건(학생 비밀결사 사건)
· 윤봉길 상해 홍구공원 의거
- 1936년 · 공주 고등보통학교 '명랑클럽' 비밀결사 조직

1940년대



- 1941년 · 조선의용대의 충남 출신 최철호 '형대전투' 중 전사
· 해방 후 충남출신 독립운동가 정정화의 독립운동일기 '정강일기' 출간
- 1945년 · 8월 15일 일본 패망 선언
- 1948년 ·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한민국 독립만세

초대석 제11대 도의회 제1·2 부의장

충남도정신문은 제11대 충남도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홍재표 제1부의장과 이종화 제2부의장과 특집 인터뷰를 갖고 각종 현안 해결방안 및 향후 도의회 운영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홍재표 제1부의장은 태안 기업 기업도시와 가로림만 연육교 관철을, 이종화 제2부의장은 서해안선-신안산선 직결과 내포신도시 활성화 등에 의정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밝혔다.



홍재표 제1부의장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지정 '돌뿌리' 구간 선형개량 등 성과 장애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노력

지난 1년간 성과와 소회

="맹자는 제민지산(국민의 생업을 안정시키)을 정치의 근본이 되는 덕목으로 강조했습니다. 저 또한 도민의 곁을 듣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도

리이자 책무라 생각하며 지난 1년도 도민을 위해 뛰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방도 603호선 태안군 이원면 포지리, 일명 '돌뿌리' 구간 선형개량 사업을 앞당기는 데 노력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주변 발달장애인 지원에도 발 벗고 나섰습니다. 발달장애 인부모회를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공기업에 이들의 열악한 처우를 알렸습니다. 이들은 물론 단 한 분의 도민도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남은 기간도 더 열심히 달려겠습니다."

“태안 기업도시·가로림만 연육교 관철할 것”

태안군 기업도시 조성이 답보상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관광도시는 태안군민의 땀과 눈물로 일군 결실입니다. 과거 간척사업으로 황금어장을 잃은 군민에게 마지막 막으로 남은 희망의 끈이었기에, 정부 과천청사 앞 집회를 열고 온몸으로 비를 맞아가며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지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러나 지난 두 번의 정부에서 수도권 집중화와 충청권 무관심으로 기업도시 조성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기업도시 조성이 본계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충남도에서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환황해권 시대 중국과 인접성, 풍부한 관광자원 등 잠재력이 높은 태안을 발전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가로림만 연육교 건설 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가로림만 연육교 건설은 6만 4000여 군민의 숙원사업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입니다. 서산 황금산에서 태안 민대항까지 거리는 불과 2.5km밖에 되지 않지만 가로림만으로 끊겨 있어 군민은 물론 관광객도 차로 5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1시간 반 이상 걸려 돌아가야 합니다. 임기 내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제2차 국가도

로망 종합계획과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민 편의는 물론 수도권 관광객 유치와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단초를 마련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수명연장을 저지하고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올해 초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수명연장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난 10대 의회에서도 결의안을 통해 화력발전소 폐쇄·증설 계획 중단과 도내 가동 중인 발전소의 환경 피해 저감대책 수립, 발전소 인근 주민 역학조사와 지역주민시설세 표준 세율을 원자력 발전 수준 이상으로 상향 조정토록 요구했습니다. 보령 1·2호기 조기 폐쇄 등이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힘을 모으겠습니다. 도민에게 맑은 하늘을 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 역점 추진할 현안을 꼽는다면

="도정의 역점과제인 혁신도시 지정입니다. 혁신도시 지정은 태안 기업도시와 마찬가지로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볼 때 일맥상통합니다. 전국 10곳의 혁신도시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 153개 중 98%가 입주를 마치면서 정

주인구와 지방세 수입 증가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성장거점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분리 발족으로 지정에서 제외돼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태안이 서울과 접근성, 안면도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내포신도시 역시 기반시설이 조성된 공공기관 이전의 최적지입니다. 혁신도시법 개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지역 정치권, 충남도와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서산비행장 민항 유치입니다. 제주공항 포화를 이유로 서산 민항은 당초 취항 시점보다 2년 후인 2025년으로 지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충남에도 하늘길이 열릴 수 있도록 이 문제 역시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아가겠습니다."

포부 한 마디

="국민으로부터 정치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문제는 정치를 하는 저 본인부터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직'과 '정의'가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라 생각하고 살아온 만큼 임기가 끝난 후에도 정의로운 의원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도민을 위해서, 오직 도민만 바라보며 정의로운 의정 활동을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활성화·서해안선 직결 문제 앞장”

이종화 제2부의장

학교 실내체육관건립 미비 지적 광천 서승태 선생 업적 기리기도 내포 혁신도시 지정 주력할 것

지난 1년간 성과와 소회

="11대 의회 교육위원회로 소속돼 우리나라 미래인 학생의 학습·건강권 보장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도내 초중고 729교 중 실내체육관이 없는 학교 비율이 31%를 차지하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청 차원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학생비만을 낮추기 위한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안도 발의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지역 출신 독립운동 인물의 업적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모르는 독립운동가를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의정토론회를 열고 홍주 지역의 독립운동사를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의 독립운동 인물을 발굴하고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계승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서해선-신안산선 노선 연결 문제가 도

마에 올랐는데

="충남 홍성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50분 만에 갈 수 있다는 도민의 염원이 4년 만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완공 1년을 앞둔 시점에서 국토교통부가 서해선과 신안산선을 직접 연결하겠다는 방침 대신 두 노선 간 환승으로 계획을 손바닥 뒤집듯 바꿨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성과 경제성을 따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신안산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고 여객수요 분산으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국토부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경제성이 낮은 신안산선 민자 사업의 수익성을 높여 주기 위해 비용 부담이 큰 서해선 복선전철과 선로 공유 계획을 포기했다는 의구심마저 드는 상황입니다. 도민의 교통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당초 취지와도 맞지 않은 환승 계획을 원안대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충남도 등과 힘을 모으겠습니다."

혁신도시 지정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혁신도시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서러운데 지역인재 우선 채용에서도 차별받고 있어 충남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충남도가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중앙부처, 정치권에 우리 의지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불합리한 정부 계획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혁신도시 지정 논리를 개발해야 합니다. 혁신도시에 목마른 저 역시 법 개정예를 보태고자 비회기 동안 국회를 찾았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은 물론 다른 의원도 만나 도움을 구했습니다. 자리에 없을 경우엔 보좌관에게라도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혁신도시는 어느 한 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충남의 발전과 대학, 청년일자리 위한 일이나 혁신 도시법 개정을 위한 백만인 서명에 도내 모든 시군에서 함께 도와주셔야 합니다. 단순히 청년일 자리를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일입니다. 이번에 출범한 혁신도시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내포신도시는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더부살이를 끝내고 도민의 품으로 돌아온 충남의 중심이자 상징이며 열굴입니다. 그러나 인구 수는 당초 계획보다 4분의 1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인구증가세를 회복하기 위해선 혁신도시 지정도 필수지만 미흡한 정주여건 개선도 시급합니다. 가장 절실한 것은 종합병원 유치입니다. 비용을 지원하



더라도 종합병원을 유치하거나 홍성의

료원을 종합병원에 준하는 시설로 키워야 합니다. 축산 악취 문제 역시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내포신도시 주민들은 매년 여름철 창문도 열 놓지 못할 정도로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대 규모 양돈농가인 사조농산이 지역에 있는 한 악취 민원의 반복은 뻔할 뿐더러 '탈 내포' 역시 가속화 될 것입니다. 단속 등 단기적 방안을 추진하면서 사조농산 문제 해결에 충남도, 홍성군과 함께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

="여야를 떠나 도민이 행복하고 도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잘 한 일은 칭찬하고 좋은 정책은 적극 지원하되 잘못된 부분은 여당 의원도 함께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야당 부의장으로서 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 제안과 조언, 협의를 통해 도정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김대영 의원(계룡)이 대표 발의한 ‘충남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안전관리 지원 범위를 기존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3호에서 제34조 전체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범위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



김대영 의원

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등이다.

김대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투명하고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에도 도움이 될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314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외국인주민 한글 학습 기회 넓힌다

충남도의회가 도내 비문해자를 비롯해 결혼·이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해교육 지원체계 수립에 나선다.

도의회는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오인환 의원(논산1)이 ‘충남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다.

이 조례안은 문해교육 운영기관별 예산액에 따른 프로그램과 학습환경 차이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도내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학습자 9764명 중 논산(3192명)이 가장 많았고 천안(675명), 예산(674명) 순으로 이용 편차가 큰 실정이다.

조례안에는 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종합시책 수립을 도지사 책무로 규정하고, 교육대상자 범



오인환 의원

위를 도내 비문해자와 결혼·이주 외국인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을 문해교육센터로 지정해 문해교육 과정과 연구개발·보급, 대상자 발굴, 교원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오인환 의원은 “4차산업혁명이 이뤄지고 있는 요즘도 성인 비문해자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조직화된 문해교육을 통해 기초 문해능력이 부족한 성인과 도내 거주하는 결혼·이주외국인의 사회·문화적 기초생활능력이 향상되고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공공기관 자동차 친환경으로 바뀐다

충남도의회가 전기·수소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김한태 의원(보령1)이 대표 발의하는 ‘충남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안’을 심의한다.

조례가 통과되면 도내 공공기관은 공용 또는 업무용 차량 구입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해야 한다.



김한태 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재양성 사업, 도민 홍보, 예산 지원사항 등도 조례안에 담겼다.

김한태 의원은 “대기 오염물질 배출원 중 도로이동오염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며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의 적극적인 보급과 이용이 활성화된다면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이 줄어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기업활동 지원범위 확대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정병기 의원(천안3)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8월 1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경영활동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 등에 장애인기



정병기 의원

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도록 규정했다.

정병기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장애인기업이 조금이라도 더 안정된 기업 활동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지속가능한 자립과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8월 27일부터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우리밀 생산·유통·소비 촉진 앞장

충남도의회가 우리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양금봉 의원(서천2)이 대표발의한 ‘충남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

조례안에는 ▲우리밀 생산·유통·소비촉진 계획 수립, 우리밀산업 육성 종합시책 수립과 예산 지원 ▲도민과 공공기관, 학교, 기업 등의 단체급식과 음식점에 우리밀 사용 홍보 권장



양금봉 의원

▲체계적인 우리밀 보호·육성·발전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기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제2의 국민 주식인 우리밀을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밀 재배 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산 화천리 중왕교차로 민원해결 나서

지하도 설치공사 예산반영 요구

충남도의회 장승재 의원(서산1)이 지난 6일 서산 지곡면 화천리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장 의원과 국토교통부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청 도로철도항공과, 의회 해당상임위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마을주민들의 요구사항은 화천리 중왕교차로 일대에 이용률이 저조한 육교를 철거하고 지하도를 설치, 교차로를 자주 이용하는 농민들의 안전을 확보해달라는 것이다.

해당 교차로의 지하도 설치 민원은 2017년에 마을주민 2명이 교차로를 횡단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2018년 5월에 정식으로 민원으로 접수되었으며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자 지난 달 18일 재차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장 의원은(서산1) “계획성 있는 도로관



장승재 의원

리가 중요한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는 위험한 상황은 그 어느 사안보다 중요하고 급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화천리의 중왕교차로는 마을 주민들이 농지로 이동하기 위해 자주 이용하는 교차로인데 간혹 신호와 속도를 위반하며 지나다니는 자동차들이 주민들에게 매우 위협적이다. 그리고 육교는 고령자들이 많아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다”며 신속한 민원해결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및 충남도 관계자들은 “마을주민과 장 의원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최대한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동안 주민들이 교차로를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신호 및 속도위반을 하지 못하게 안전대책을 먼저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재능기부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지원

충남지역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마음껏 재능기부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한영신 의원(천안2)이 ‘충남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다.

이 조례안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구체적 추진계획, 사업 등을 명시하고 행·재정적 지원과 포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한영신 의원

도지사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를 지원하고 교육과 홍보, 재능기부자에 대한 공공문화시설 공간 제공, 재능기부를 위한 결연·후원사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

한영신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예체능 분야 뿐만 아니라 행정, 법정,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기부 문화가 조성돼 지역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원시론

혁신도시 지정 “충남 저력 보여줄 때”



조승만 충남도의회 의원

그동안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서 충남도의회와 충청남도가 대전광역시, 지역출신 국회의원 등의 정치권과 함께 노력하였으나,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 법안은 지난 7월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노력으로 국회에서 충남도지사와 대전광역시장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과 의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또한, 지난해에는 민주당 중진의원들이 내포를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의 노력 등을 통해 도민들이 충남 혁신도시 지정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태에서 혁신도시가 의결되지 못해 기대를 걸었던 220만 도민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2005년 이후 비수도권 11개 광역시도가 10개 혁신도시로 지정, 이전된

공공기관과 산·학·관·연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데 대전·충남만은 제외되어 국토균형발전 정책으로부터 15년간 배제되고 있다. 혁신도시 첫 지정 당시 대전 충남의 혁신도시 배제 논리로 세종시 건설을 들었지만 통계를 살펴보면, 세종시 건설로 인해 충남은 인구가 약 13만7000명이 유출되었고, 지역내 총생산도 약 25조원이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한다.

대전의 경우는 인구 10만 명이나 세종시로 유출되어 원도심공동화가 심하다는 보도를 접하기도 한다. 필자는 혁신도시 지정 촉구 건의문

을 작성,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대표발의하고 충남도의회 일동으로 청와대와 국회, 중앙부처에 보내는 노력과 함께 도지사에게 수차례의 5분 발언과 도정질문을 실시하는 등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들과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왔다.

다행히 충남도에서는 지난 13일 도청문예회관에서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창단,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단체와 함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새롭게 추진한다고 하니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다. 나라의

위기 때 마다 분연히 일어났던 은근과 끈기의 충청인의 정신! 충청도의 저력이 있지 않았던가?

이번 기회에 충남도에서는 우선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단계별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 패러다임을 재구성하고 혁신도시 지정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정치권과 민간단체의 공조 및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논리를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민간단체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범도민 추진위원회에서는 충청인들의 단합된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충남도와 대전시가 공조를 이루면서 충청권 국회의원들의 역량을 총 결집해 내년 총선 전까지는 반드시 충남에 혁신도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 사회보험료 1785억 지원, 고용불안 해소
-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6200억 확충
- 지역화폐 발행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도모



“일본 수출 규제조치 21세기 경제침략”

충남도의회, 성명서 내고 규탄
“부품소재 기업 지원책 마련”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지난 2일 일본의 우리나라 백색국가 제외 의결 조치에 대해 “자유무역과 한일 양국간 관계 증진에 반하는 일본의 치졸한 보복성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도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충남 뿐 아니라 우리나라 핵심 산업인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이어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 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과거 우리나라를 침략해 경제발전의 길을 철저히 막은 일본은 100여 년이 지난 지금 과거로 퇴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자유 공정 무역을 강조해 온 일본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위이자 21세기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침략”이라며 “충남도는 우리 정부의 핵심 소재·부품·장비 개발 국산화 정책에 발맞춰 도내 관련 기업의 자립 기반 육성을 위한 지원·육성책 마련에 팔 걷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이번 사태를 우리나라 부품소재 발전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힘을 보태겠다”며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과거사를 청산하도록 항일운동의 성지인 충남에서 220만 도민, 나아가 모든 국민과 함께 단결된 모습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상권 활성화 도시재생전략 수립 ‘착착’

연구모임, 서천 장항전통시장 방문

충남도의회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전략 구축 연구모임은 지난 8일 장항읍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두 번째 회의를 갖고 연구와 현장 방문을 통해 장항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도의회 전익현(서천1) 의원을 비롯해 양금봉(서천2)·이계양(비례) 의원과 서천군의회 노성철·이현호·김아진 의원, 충남도 김두기 도시재생팀장, 충남연구원 지역도시·문화연구실 임준홍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무너져가는 장항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먼저 유동인구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영기



전익현 의원을 비롯한 연구모임 회원들이 현장방문에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박사로부터 ‘사례로 본 장항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강의를 들은 후 점포별 정기배송 서비스와 체험중심 시장나들이, 지역밀착 고객 창조형 상점이 조성 등 장항전통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특화 전략 수립과 지원 필요성에 공감했다.

회의가 끝난 후에는 장항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시장 지원사업으로 추진된 상권도야

기반 조성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상황도 확인했다.

전익현 의원은 “인구감소와 경기 침체로 붕괴된 상권을 회복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실 있는 상권 활성화와 도시재생전략 구축을 위해 추후 지역 주민과 간담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생명 구한 충남도의회 직원

보령 성주면 인근 하천서
성인 남녀 2명 구조



여성과 남성이 하천 한가운데 빠져 있었고, 특히 남성은 의식을 잃은 심각한 상황이었다.

충남도의회 사무처 직원이 인근 하천에 빠진 성인 2명의 목숨을 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 주인공은 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근무 중인 오홍택 정책연구원(40·사진).

지난 3일 보령시 성주면의 한 농촌 체험장(어린이 물놀이장)으로 가족과 놀러온 오 연구원은 구조를 요청하는 목소리를 듣고 하천으로 달려갔다. 현장에서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오 연구원은 아내에게 119로 신고하도록 얘기한 후 물로 뛰어들어 의식이 없는 남성을 먼저 물 밖으로 꺼내고 곧바로 여성을 구조했다. 남성은 오 연구원의 심폐소생술 덕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정신을 차렸다.

두 사람 모두 건강상 큰 이상이 없어 병원 진료까지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과 항일운동 발자취 좇아

이종화 의원, 청산리역사대장정
부단장으로 참가해 전적지 탐방

충남도의회 이종화 의원(홍성2)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청소년들과 우리나라 항일 독립운동 발자취를 좇았다.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부터 8박 9일간 도내 중고등학생과 인솔교사 등 90여 명과 ‘제10회 청산리 역사 대장정’에 참가해 옛 선인의 나라사랑 정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의원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청산

리, 봉오동 전투 전적지 등 백야 김좌진 장군의 항일 무장투쟁 경로를 따라가면서 애국선열의 항일정신을 느꼈다.

발해·고구려 영토와 여순감옥,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답사하면서 사라져 가는 민족·역사 의식을 다시금 되새기는 한편 조국의 빼앗긴 과거도 확인했다.

이 의원은 “우리의 권리를 잃지 않고 끝까지 조국독립을 위해 노력하고 산화한 애국지사들과 순국선열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독립운동 역사와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재조명하고 널리 알리는 기념사업 추진에 앞장서



이 의원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역사에 관심 갖고 배우는 것은 미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갖고 세계화 시대 미래 주인공으로 성장해 지역과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홍성·예산 ‘내포신도시’ 활성화 해법 찾는다

행동하는 충남도의회
내포신도시 활성화 및 시·군 균형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조승만 도의원 대표)

제11대 충남도의회는 도민생활과 밀접한 정책발굴을 위해 전방위적 연구모임을 풀가동하고 있다. 충남도의 안전한 항해를 위한 정책나침반이 될 충남도의회 12개의 연구모임을 대표와의 일문일담으로 소개한다.



내포신도시 활성화 및 시·군 균형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회원들이 발족모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구모임 구성 계기는?
=“2013년 내포신도시로 충남도청, 교육청, 경찰청 등 주요기관이 이전해 오고 이후 기타 공공기관들이 속속 이전해 왔지만 현재 내포신도시 인구는 2만4000명 정도로 2020년까지 계획인구 10만명에 한참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

니 미분양 주택과 상가 공실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도시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해 정체된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시 지역의 인구집중 및 구도심 쇠퇴로 인한 공동화, 군 지역 인구감소 문제는 시급히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뜻이 맞

는 의원 및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해법을 찾아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운영 성과는?

=“저를 비롯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장승재, 정광섭, 김대영, 이계양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영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황영란 의원, 교육위원회 김영수 의원까지 8명의 도의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운대학교 박현욱·최인호 교수, 장동호 내포신도시발전과장과 최문희 균형발전담당관,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염원하는 지역주민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간사는 행정복지연구소

송채규 소장이 맡고 있습니다. 2019년 3월에 1차 발족모임을 개최했고 6월에는 2차 모임, 8월에는 현장방문을 실시했습니다. 9월과 11월 두 번에 걸쳐 3·4차 모임을 갖을 계획이며, 12월에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는?

=“정체된 내포신도시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도출, 내포시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 도심 공동화 원인을 분석해 시·군 균형발전을 앞당길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포부 한 마디

=“그동안 내포신도시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왔다고 하지만 현실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내포신도시 활성화와 시·군 균형 발전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